



고령사회 대비 대전지역 베이비부머 연구

장창수
윤경아
이윤화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 책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윤경아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윤화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5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베이비부머의 개념	11
제2절 베이비부머의 삶의 특성	14
제3절 선행연구	24
제3장 조사결과 분석	31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제2절 가족관계	46
제3절 경제활동	53
제4절 여가활동	66
제5절 심리적 특성	7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8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89
제2절 정책제언	93
참고문헌	101
부록 :	105

표 목 차

<표 1-1> 대전시 베이비부머 연구 주요 조사내용	6
<표 2-1> 50대가 겪어온 현대사(1960년생·만59세의 경우)	13
<표 2-2>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중년위기의 남녀비교	15
<표 2-3>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인구규모	16
<표 2-4>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가구특성	17
<표 2-5>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학력 및 경제상태	19
<표 2-6>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20
<표 2-7>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22
<표 2-8> 연령별 자살동기 순위 및 비율	23
<표 2-9> 한국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과제	25
<표 2-10> 지역별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방향	27
<표 3-1> 성 분포	31
<표 3-2> 연령 분포	32
<표 3-3> 교육수준	33
<표 3-4> 결혼상태	34
<표 3-5> 가구원 수	34
<표 3-6> 가족구성원	35
<표 3-7> 주거 형태	36
<표 3-8> 가구의 총 소득액	37
<표 3-9> 주관적 경제수준	38
<표 3-10> 노후에 예상되는 주관적 경제수준	38
<표 3-11> 노후 생활자금 준비 방법	39
<표 3-12> 노후 생활자금 준비 유형 수	40
<표 3-13> 주관적 생활수준	41
<표 3-14> 질병의 종류	42

<표 3-15> 주관적 건강수준	43
<표 3-16> 흡연실태	43
<표 3-17> 음주실태	44
<표 3-18> 과음실태	45
<표 3-19> 가족에 대한 의무감	47
<표 3-2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지지	48
<표 3-21> 배우자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정도	49
<표 3-22> 성별에 따른 배우자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정도 차이	49
<표 3-23> 배우자의 지지	50
<표 3-24> 성별, 전·후 세대별 배우자 지지 정도 차이	51
<표 3-25> 배우자와의 긴장정도	52
<표 3-26> 성별 배우자와의 긴장 정도 차이	53
<표 3-27> 경제활동 경험 유무	53
<표 3-28>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54
<표 3-29> 주당 근로 시간	55
<표 3-30> 직업유형	56
<표 3-31> 일을 하고 있는 이유	57
<표 3-32> 성별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의 차이	58
<표 3-33> 일을 통한 보상	59
<표 3-34> 성별 일에 대한 보상의 차이	59
<표 3-35> 일 스트레스	60
<표 3-36> 성별 일 스트레스 차이	61
<표 3-37> 일에 대한 만족도	61
<표 3-38> 의논상대 여부	62
<표 3-39> 일을 하지 않는 이유	63
<표 3-40> 성별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차이	64
<표 3-41> 전·후 베이비붐세대별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차이	65
<표 3-42> 은퇴 후 경제활동 욕구	66

<표 3-43> 여가활동 참여 정도	67
<표 3-44> 성별 및 전·후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 차이	67
<표 3-45> 여가활동 참여효과	69
<표 3-46> 성별 여가활동 참여효과 차이	69
<표 3-47> 전·후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효과 차이	70
<표 3-48> 여가활동 장애요인	71
<표 3-49> 성별 여가활동 장애요인 차이	72
<표 3-50> 전·후 세대별 여가활동 장애요인 차이	72
<표 3-51> 여가활동 만족도	73
<표 3-5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74
<표 3-53> 기부활동 참여 여부	75
<표 3-54> 지역사회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77
<표 3-55>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소속감 차이	78
<표 3-56>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소속감 차이	79
<표 3-57> 우울감 항목	80
<표 3-58> 성별 및 전·후 세대별 우울감 항목의 차이	81
<표 3-59>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 차이	82
<표 3-60> 소득과 우울집단간의 관계	82
<표 3-61> 은퇴 후 예상되는 문제	84
<표 3-62> 성별 은퇴 후 문제대한 인지 차이	84
<표 3-63> 전·후 세대별 은퇴 후 문제대한 인지 차이	85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로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한국전쟁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1963년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급속도로 둔화되는 시점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말함.
 - 정책 및 연구분야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이유는 전체 인구의 14.5%로 추산되는 거대인구집단의 은퇴러시가 우리사회에 미칠 과장이 크고(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는 일과 가족영역에서 이전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임.
 - 베이비부머는 이전세대에 비해 다양한 직업형태를 가지며 직업안정성이 떨어져 베이비부머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고, 가족의 삶 역시 이전세대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져 결혼율은 줄고 이혼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특히 다가올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불안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현재 삶을 진단하고 향후 삶의 격차를 줄일 정책방안 모색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1980년대는 경제가 호황기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우리 경제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베이비부머세대는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음.

- 외환위기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일자리를 떠나야 했고, 퇴직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 따라서 베이비붐현상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베이비부머의 현재생활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대책들의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
 - 지난 7월 정부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은퇴문제를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관계부처는 노후생활지원법제정과 같은 대책을 발표함.
 -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역의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베이비부머의 현재 생활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베이비부머집단 내에서의 삶의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 하지만 아직까지 베이비부머대책에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베이비부머대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법제도 창설·개정,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침이나 기준 수립,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제도의 틀과 기반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실시의 주체가 됨.
 - 지역마다 베이비부머의 규모와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베이비부머대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들에 주안점을 두게 됨. 첫째, 법률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제도를 국가기준에 따라 실시함. 둘째, 중앙정부의 제도보다 급부수준이 높거나 이용자부담을 경감시킨 추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셋째, 중앙정부의 제도에는 없지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임. 이에 본 조사를 통하여 대전지

역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베이비부머 정책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함.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분석대상

- 설문조사대상은 성과 연령,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음. 구체적으로 성별과 연령별 비율 안배를 위하여 표본을 조정하였으며,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중산층의 다양한 직업군을 표집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인력과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 훈련된 전문조사원 5명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만49세~57세(1963년~1955년)이며 조사가 완료된 5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조사내용

- 선행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및 사회관계, 가치관, 소득 및 경제활동, 건강, 사회참여, 생활편리성, 노후설계영역을 조사하였음.
 - 가족과 사회관계, 가치관의 경우 개인생활의 기초가 되고 다양한 생활현황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영역임(정경희 외, 2011).
 - 나머지 다른 영역도 중년기의 베이비부머의 현재 생활상태 및 다가올 노년기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사 영역임.
- 본 조사에서는 조사내용에 이러한 영역의 대부분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대

전시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설문내용을 개발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활동, 여가활동, 안녕상태 및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에 제시함.

<표 1-1> 대전시 베이비부머 연구 주요 조사내용

항목	주요 조사내용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ssi(2001)의 가족의무감척도에서 친구의 자녀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가하여 7문항으로 가족의무감 측정. 응답범주는 0(전혀 할 필요없음)부터 10(꼭 해야함)까지임. ◦ Schuster 등(1990)의 가족지원 및 가족갈등과 배우자지원 및 배우자갈등 척도 20문항으로 가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측정. 응답범주는 1(전혀)부터 4(매우 많이/자주)까지임.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경험 여부 ◦ 현재 하는 일의 직종, 일을 통한 보상, 업무스트레스, 만족도 ◦ 직장에서의 의논상대 유무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 은퇴 후나 노년기에 경제활동 희망 여부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참여빈도 ◦ 여가활동 참여 후의 효과 ◦ 여가활동 장애요인 ◦ 여가활동 만족도
안녕상태 및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Radolff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20문항으로 우울정도 측정. 응답범주는 1(극히 드물게)부터 4(거의 대부분)까지임. ◦ 경제적 준비부족, 건강문제, 여가활용문제 등으로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측정

3. 자료 처리 및 분석

-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코딩작업 후 수정을 거쳐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문항분석에서 관련성이 없는 '비응답'과 '무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적용과 반올림 관계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비율을 100.0으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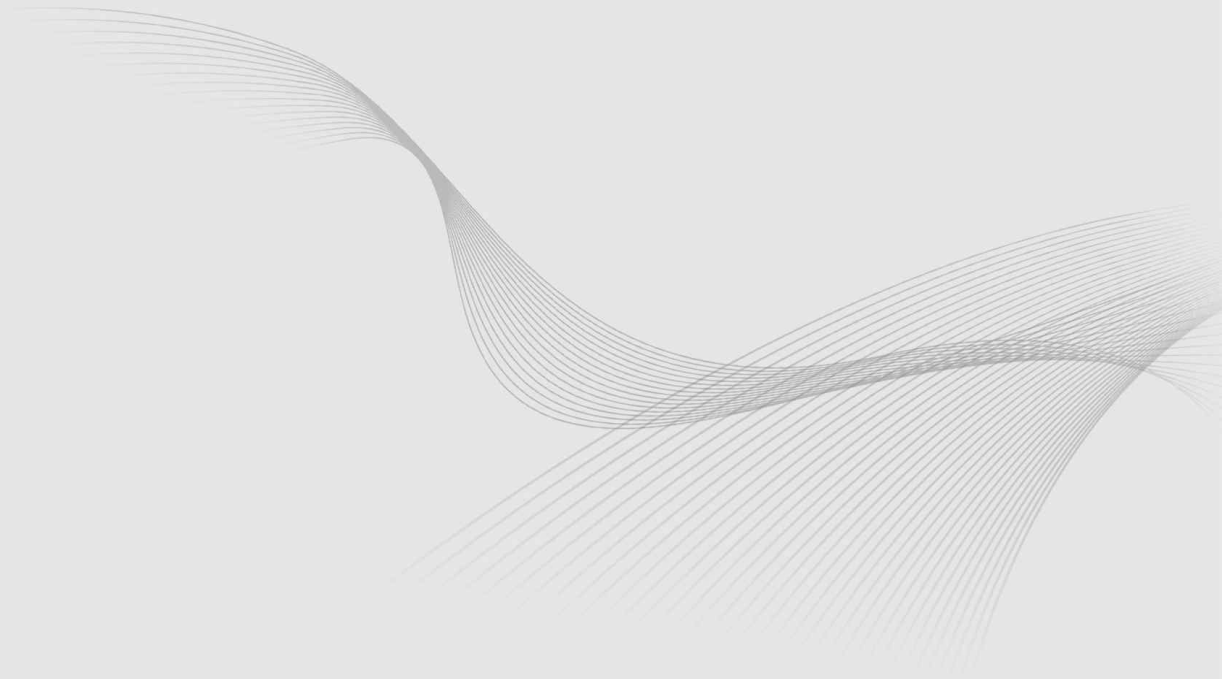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베이비부머의 개념

제2절 베이비부머의 삶의 특성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베이비부머의 개념

1. 베이비부머의 정의

- 베이비부머란 베이비붐시기 즉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함.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출산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베이비붐으로 인식되었음.
 - 베이비붐이 인구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베이비붐현상은 나라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Phillipson, 2007). 즉 핀란드에서는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0년대 초에 줄어들지만, 미국은 1964년까지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였고, 영국은 1947년과 1964년에 출생률이 최고조에 달함.
- 나라마다 출산율이 급증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베이비부머가 속하는 기간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2.94~3.76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1946~1964년생을 베이비부머로 부르며, 일본은 출생아 수 기준으로 1947~1949년생(806만명)을 제1차 베이비붐세대(단카이세대), 1971~1974년생을 제2차 베이비붐세대(에코세대)로 보고 있음(통계청, 2012).
 -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로 봄.
- 통계청(2012)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베이비부머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함. 남녀비율은 49.8%와 50.2%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고, 연령별로는 거의 비슷하여 1963년생부터 1955년생까지 9.5%~12.5%를 차지함.

2. 베이비부머의 성장배경과 근로생애

- 베이비부머집단 내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집단 전체를 한 그림으로 그려내기는 어려움. 즉 베이비부머세대라 하더라도 베이비부머들은 직업, 소득,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집단 안에 다양한 하위집단이 형성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는 다양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
 - 하지만 베이비부머는 아래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건의 영향 하에서 성장하였으며, 크든 작든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짐.
 - 큰 그림에서 볼 때 베이비부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동력세대고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한 세대로 평가됨(통계청, 2012).
- 일과 직업생활에 있어서 베이비부머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주요 일자리에 시행착오 없이 빨리 정착하였지만 경력의 시작시점에서 가진 이점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상쇄되었음(방하남, 외, 2010).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중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내에서의 특징과 고용에 여성차별을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내에서는 전기 베이비부머들에 비해 후기 베이비부머들이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전문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과 단순노무직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편 대학을 졸업한 여성베이비부머의 경우 취업을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에 대기업 대졸여성공채가 30~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또 사실상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동아일보, 1986.11.11.) 고학력 여성의 취업에도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표 2-1> 50대가 겪어온 현대사(1960년생·만59세의 경우)

시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유년기 1960년대	4·19혁명 5·16군사정변	경제개발5개년계획	중학교무시험추첨입학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10대 1970년대	유신체제, 10·26사태 12·12사태	경부고속도로개통 새마을운동 산림녹화사업 오일쇼크 중동진출 붐 수출100억불달성 1인당국민소득천불	전태일분신자살 고교평준화제도도입 미니스커트·장발단속
20대 1980년대	전두환정권수립 노태우정권수립	3고시대(고유가·고금리· 달러고) 경제호황	삼청교육대 5·18광주민중화운동 통행금지해제 본고사폐지 과외금지조치 6월민주항쟁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30대 1990년대	김영삼정권수립 김대중정권수립	금융실명제실시 OECD가입 우루과이라운드타결 소비의 시대 외환위기 구조조정, 명예퇴직 신용카드납발	서해 폐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붕괴 신세대등장 10대 위주대중문화 대학수학능력시험도입 인터넷사용서비스
40대 2000년대	노무현정권수립 이명박정권수립	카드대란 2050클럽진입 금융위기	호주제폐지
50대 2010년~		베이비부머 은퇴시작	

자료: 정장열(2006). 한국의 50대. 주간조선(2006.10.21)에서 수정.

제2절 베이비부머의 삶의 특성

1. 베이비부머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 베이비부머는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중년기에 속하는 사람들임. 중년기는 남은 생을 준비하고,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시기임. 중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으로 유사한 발달과정에 있음(Papalia, Feldman & Olds, 2006).
 - 즉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중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감각기관의 기능이나 건강, 정력, 체력이 서서히 감퇴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 흥분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며 여성은 폐경을 경험함.
 - 인지적 측면에서는 정신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해결기술수준이 높은 시기임.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물은 감소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고 직업경력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직업에서 소진을 경험하거나 경력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또한 중년기에는 정서적으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빈도는 줄어듦. 대인관계 네트워크는 작아지지만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또한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Maslow와 Rogers 같은 인본주의 이론가들은 중년기를 인격성숙의 시기로 보고 Jung은 중년기를 전에 억압되었던 성격이 드러나는 시기로 보았으며, 중년기의 과제는 젊음의 이미지를 포기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강조함(Papalia, Feldman & Olds, 2006). Erikson에 의하면 중년기의 미덕은 돌봄이며 이루어야 할 과업은 생성감(generativity)임. 이는 가족, 관계, 일 및 사회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 생성감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끌고자하는 관심이며, 생산성과 창조성이 포함된 개념

임. 중년기의 기본적인 과업인 생성감은 가족부양과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임.

-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핵심 관심사는 중년의 위기, 정체성 발달, 심리사회적 안녕상태임(Papalia, Feldman & Olds, 2006). 중년의 위기에 대한 넷세이기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부터의 위기 항목은 건강, 고용, 결혼(가족)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은퇴생활을 포함한 중년 이후 삶의 격차를 결정함(한국경제매거진, 2012.5.30). 또한 이러한 중년의 위기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남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와 실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10년 넘게 살다 이혼하는 숙년이혼이 중년기의 중요한 위기 사건임. 여성 역시 오래 살게 되면서 건강악화와 노후자금의 문제가 심각하고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노후 생활이 불안할 수 있음.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일-가정양립의 문제가 더 심각함.

<표 2-2> 넷세이기초연구소의 중년위기의 남녀비교

	남	여
고용 격차	실업률의 상승 무업자의 증가	비정규직 증가 및 고용환경변화 비정규직의 리스크 증가
건강 격차	심리적 질병(우울증)의 문제 직장고립과 자살의 증가	장수, 간병, 노후자금의 문제 고령생활보호수급자의 증가
결혼 격차	생애 미혼율의 상승 숙년 이혼의 증가	미혼·비혼·이혼 증가, 재혼율의 저하 일-가정양립 조화의 리스크 상승

자료: 한국경제매거진, 2012.5.30.

- 또한 자아정체성발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경험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이며, 정체성의 유형을 통해 노화가 시작되었을 때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음(Papalia, Feldman & Olds, 2006). 생산성은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안녕상태와도 관련됨.

2.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1) 인구규모

-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3~1963년생)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함. 부산을 제외한 대개의 지역에서 베이비부머비율이 13~15% 내외임. 대전지역의 베이비부머인구는 211천명이고 전체인구의 14.2%를 차지하여 전국의 평균 베이비부머 비율에 가까움.

<표 2-3>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인구규모

(단위: 천명, %)

구분	전체인구	베이비부머인구	베이비부머비율
서울	9,631	1,399	14.5
부산	3,393	557	16.4
대구	2,432	370	15.2
인천	2,632	404	15.4
광주	1,466	194	13.3
대전	1,490	211	14.2
울산	1,072	170	15.9
경기	11,196	1,569	14.0
강원	1,464	222	15.2
충북	1,496	213	14.2
충남	2,000	263	13.1
전북	1,766	243	13.7
전남	1,729	239	13.8
경북	2,575	369	14.3
경남	3,120	456	14.6
제주	528	71	13.5
전국	47,991	6,950	14.5

자료: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예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에서 수정.

2) 가구특성

-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평균 가구원수는 3.25 명이고 자녀수는 1.92명임.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61.5%가 아파트에 거주 하며 81.7%는 본인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가구원수와 자녀수 모두 전국평균보다 적지만 아파트거주비율과 자가 소유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특히 아파트거주비율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됨.

<표 2-4>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가구특성

(단위: 명, %)

구분	가구원수	자녀수	자가비율	아파트거주비율
서울	3.67	1.96	68.2	47.3
부산	3.44	2.01	74.7	40.6
대구	3.46	1.97	73.7	51.7
인천	3.41	1.73	74.1	49.4
광주	3.77	2.36	72.8	58.7
대전	3.25	1.92	81.7	61.5
울산	3.27	1.83	66.7	53.1
경기	3.48	1.89	78.0	54.6
강원	3.10	2.10	71.6	51.1
충북	3.53	2.33	91.4	47.1
충남	3.31	2.18	89.7	43.3
전북	3.31	2.26	87.1	51.4
전남	2.95	2.41	72.7	36.4
경북	3.07	2.09	80.9	40.0
경남	3.50	2.13	86.3	43.8
전국	3.42	2.03	77.0	48.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부모는 부양하지만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아 일방적인 부양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노후의 거주형태 역시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의견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형태도 외부서비스 이용이 67.2%로 압도적이며 자녀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함.

3) 학력 및 경제상태

-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25.7%가 대학졸업이상으로 4명 중 1명이 고학력계층임.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학력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광주다음으로 고학력계층의 비율이 높음. 또한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형편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베이비부머의 취업자비율은 67.0%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았으나 가구연소득과 근로임금, 사업소득, 저축액수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과 자녀사교육비 역시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특히 대출규모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고 전국적으로도 중복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음.
-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사업장을 떠나 자영업과 같은 자유직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김수봉, 2011). 20~30대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80%를 상회하였으나 40대 중반이후에는 66.3%임. 사업소득은 40대 이후에는 25.1%, 이전소득은 5.4%로 급증하고 있음. 또한 베이비붐 세대 중 은퇴 후 노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63.9%에 달하며, 일자리희망 이유는 58.8%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조사됨. 현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은 77.8%인데, ‘소득’ 58.5%, ‘건강’ 16.2%, ‘자기발전’ 14.4%, ‘여가시간 활용’

7.5%, ‘사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3.4%로 나타남(정경희 외, 2010).

<표 2-5>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학력 및 경제상태

(단위: %, 만원)

구분	학력 (대졸이상)	취업 자 비율	가구 연소득	대출	월평균					
					25.0	사업소 득	생활비	사교육 비	저축	용돈
서울	25.0	65.2	4286.18	8216.36	224.4	234.1	244.33	30.38	45.86	20.76
부산	11.8	73.5	3227.37	2933.94	170.6	188.7	185.78	12.13	32.60	17.16
대구	23.7	67.8	3297.55	4660.87	183.3	178.7	174.10	14.14	42.47	18.09
인천	11.8	71.8	3362.82	4366.49	167.3	141.5	215.57	13.54	31.70	20.76
광주	28.3	70.7	4183.00	3905.77	212.5	246.0	192.95	17.20	36.39	23.73
대전	25.7	67.0	3832.66	1675.00	231.5	274.1	192.22	14.65	52.64	29.35
울산	8.6	70.4	3912.83	3388.57	235.5	266.6	199.77	15.57	54.85	21.73
경기	22.0	67.4	4056.21	4501.29	216.5	272.2	231.45	21.79	47.84	21.77
강원	17.0	71.6	4920.40	6287.40	190.1	251.9	216.67	16.95	47.84	18.82
충북	14.3	72.9	3562.00	1290.00	244.1	310.0	191.04	13.13	37.08	30.90
충남	16.5	67.0	3378.97	3400.00	194.1	259.4	166.88	16.38	36.09	24.02
전북	17.1	71.4	3482.27	5861.16	183.0	252.6	146.44	12.48	47.76	18.91
전남	17.0	73.9	3018.44	4700.68	174.0	172.3	162.15	9.20	37.17	19.91
경북	15.7	79.1	3219.08	4570.73	204.1	194.6	184.82	17.38	24.13	16.15
경남	14.4	77.1	3298.56	6501.61	180.8	207.0	201.24	8.18	35.94	18.16
전국	19.2	70.3	3749.51	5081.09	203.5	228.7	203.36	17.51	41.40	20.9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 여가활동

-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연평균 여행이나 관광 혹은 나들이 횟수는 1.49회이며 126.95만원을 지출함. 영화나 음악회 등을 포함한 관람 횟수는 연평균 한 번에 못 미치며 비용은 11만 원가량을 지출함. 취미나 오락 활동은 월평균 6분에 불과하며 4만원 가량을 지출함. 월평균 자원봉사시간은 12분으로 조사됨.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동은 연평균 여행이나 관람은 횟수와 지출 모두에서 베이비부머의 평균이상이나 월평균 취미활동에 쏟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원봉사시간은 베이비부머 평균보다 낮게 조사됨. 특히 자원봉사시간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함.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에서의 활동은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고 중년기 생성감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해 행복을 증가시킴. 이러한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2-6>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단위: 회, 만원)

구분	연평균				월평균		
	여행/관광/나들이		영화/공연/음악회/전시회 /스포츠경기 관람		취미활동/오락		자원봉사
	횟수	지출	횟수	지출	시간	지출	시간
서울	0.86	74.28	0.60	4.84	0.62	5.47	0.55
부산	0.80	28.08	0.42	3.67	0.49	2.50	0.24
대구	1.54	38.00	1.35	8.00	0.49	7.29	1.58
인천	2.27	67.33	1.56	11.52	0.64	2.25	1.81
광주	1.53	92.86	0.85	4.88	0.15	0.50	2.28
대전	1.49	126.95	0.69	10.92	0.06	3.50	0.12
울산	1.05	51.71	0.48	7.50	0.54	3.50	0.10
경기	1.36	74.19	0.95	6.27	0.50	2.83	0.52
강원	3.41	101.55	0.41	4.30	0.28	13.00	4.67
충북	1.17	78.15	0.26	6.86	0.06	2.50	-
충남	0.91	114.87	0.27	7.82	0.41	3.00	0.04
전북	2.43	44.11	0.46	3.75	2.14	1.00	0.83
전남	1.61	55.07	0.99	6.71	1.00	1.40	0.40
경북	1.13	46.58	0.37	6.64	0.21	6.00	0.42
경남	0.63	35.86	0.37	6.18	0.58	3.00	0.35
전국	1.32	69.48	0.69	6.54	0.52	4.21	0.7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붐세대의 여가 및 사회참여정도는 낮았지만 은퇴 이후의 여가생활에서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문화나 여가향유수준은 1년간 문화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 낮게 나타났지만 은퇴 이후의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83.7%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율도 7.3%로 낮게 나타났으나 49.5%가 은퇴 이후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삶의 만족도

-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상태와 삶의 질 영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전국적으로 충북,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하지만 건강상태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는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표 2-7> 시도별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구분	경제상태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삶의 질
서울	52.23	59.90	66.16	71.50	60.17
부산	46.71	60.24	71.69	76.61	60.88
대구	53.31	64.49	66.82	76.15	62.20
인천	48.59	67.29	67.70	74.74	61.65
광주	51.52	67.61	75.12	80.17	68.26
대전	63.03	59.17	69.29	70.00	64.50
울산	57.28	68.64	74.34	75.11	65.56
경기	57.50	61.88	68.82	72.40	64.78
강원	51.82	61.36	73.00	79.46	65.45
충북	65.00	68.00	75.50	75.00	68.43
충남	63.61	58.25	68.75	67.54	63.71
전북	50.71	70.43	77.90	85.35	69.86
전남	45.34	60.11	72.28	76.96	61.59
경북	54.78	67.04	73.56	76.27	64.17
경남	50.00	63.73	70.07	76.18	62.94
전국	54.00	62.90	70.30	74.59	63.6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한편 베이비부머는 생애주기 상 중년기에 속하는데 중년기의 가족갈등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질병관리본부(2008)의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가 속하는 연령대인 40~50대의 자살원인 1순위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우울증과 채무 및 본인의 질병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년기에 속한 베이비부모의 정신건강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표 2-8> 연령별 자살동기 순위 및 비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0대	부모와의 갈등(29.5%)	친구와 갈등(14.8%)	직장·학교문제(11.5%)
20대	연인과의 갈등(34.3%)	우울증(15.3%)	부모와 갈등(14.8%)
30대	배우자와의 갈등(32.1%)	우울증(19.9%)	연인과 갈등(7.7%)
40대	배우자와의 갈등(44.1%)	우울증(9.9%)	채무(8.1%)
50~64세	배우자와의 갈등(23.6%)	우울증(16.9%)	본인의 질병(15.7%)
65세+	본인의 질병(35.9%)	우울증(19.6%)	자녀와 갈등(9.8%)
전체	배우자와의 갈등(22.2%)	우울증(15.5%)	연인과 갈등(12.0%)

자료: 질병관리본부(2008).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노부모수발 임. 노부모와 성인자녀세대는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중년기의 자녀가 점점 더 노부모수발을 할 가능성이 큼.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가 노부모 부양의 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도 있음.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노부모수발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중년기에 조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손자녀와의 관계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리고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남성 베이비부머보다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역할이 중요함. 맞벌이나 경제적 어려움, 이혼 등으로 자녀를 돌보거나 키우기 어려운 성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손자녀를 돌보는 베이비부머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베이비부머의 손자녀 양육은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제3절 선행연구

- 베이비부머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생활실태나 욕구 및 정책을 분석, 제안한 정책보고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즈음임. 물론 분석대상에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는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2010년에 55세가 되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한 2010년경에 본격화됨. 국가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베이비부머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2010년경임¹⁾. 주요 국가정책연구원이나 자치단체산하연구원들에서는 실증조사나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의 전반적인 특성과 욕구 및 관련 정책을 파악하거나 연구범위를 좁혀 특정영역의 연구를 실시하였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정책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특정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은 대전시 베이비부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제언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음.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가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을 펼 때 필요한 법제도의 창설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발간하였고, 2011년에는 베이비붐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원 수요조사, 베이비붐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등의 보고서를 발간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 베이비붐세대의 남녀 특성 비교 연구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와 2011년에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등을 발간함, 그리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에서도 2011년에 베이비부머의 제 특성과 욕구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나 개정 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 수립에 필요한 제안을 하였음. 대전시는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정책 실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일된 대책 외에도 대전지역 베이비부머의 규모와 요구에 따라 중앙정부의 시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 자체의 독자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이 제안한 정책과제 중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조정할 사업내용보다는 지역 베이비부머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와 같이 지역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내용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함.

<표 2-9> 한국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과제

	사업내용	정책방안
노 후 소 득	국민연금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구조 패러다임 변화, 가입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추가가입 활성화 ◦가입기간 축소 ◦가입 크레딧 확대
	공적소득보장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공적연금 연계 활성화
	사적연금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가입기간 확대 유인책 마련 등을 도모함으로써 개인연금제도 개선 ◦퇴직급부체제 개선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개선
	자산유동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 ◦역진적 소득재분배가능성을 통제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 고려한 주택연금제도
경 제 활 동	중고령자고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의 지속성 유지 노력 ◦고용안전망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사업 조정을 통한 합리화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적 방향 재설정 ◦체계적 커리어개발 프로그램도입 통한 수요와 공급 매칭
주 거	고령자주거기준 마련	◦최저주거기준과 최소안전기준을 포함하는 기준 마련
	민간부문기준 확산	◦사회적 인식 전파와 민간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표 2-9>에서 계속

	사업내용	정책방안
건강	집단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환경이 취약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홍보교육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서비스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검진의 검진율 및 질적 수준 향상 ◦건강검진 실시 이후 통합적 검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지역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중심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인구집단별 대국민 건강인식 개선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사전진단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질병예방과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기술을 활용한 U-헬스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문화	인프라 개선	◦현재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
	조사 및 R & D 지원	◦수요와 동기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문화수요수렴을 위한 정책자문창구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단체와 민간NGO에 공지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고령자 스스로 정책제안과 제안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선별하고 체계화할 기회 제공
	노년층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공공브랜드화 ◦고령자 참여촉진을 위한 공공마케팅과 홍보전략 마련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성화	◦설립 논의 중인 한국형 국가봉사단 하위조직으로 노인봉사단 조직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익형 단순자원봉사, 기존 프로그램의 준전문자원봉사 및 다양한 전문직 은퇴자의 재능을 활용한 전문자원봉사의 3층 구조화 필요

자료: 정경희 외(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84-386.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베이비부머의 현재 생활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지역 베이비부머의 삶에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은 대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및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역별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여가와 교육, 복지가 연계되어야 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함.

<표 2-10> 지역별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방향

발행기관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세대를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베이비부머세대의 독립생활 선호 경향을 고려한 주거정책 개발 ◦ 은퇴시기 연장과 같이 베이비부머세대 노동력의 지속성을 유지할 정책 마련 ◦ 베이비부머세대의 활동적인 미래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마련
전북발전연구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의 결합을 위해 기존 저소득 빈곤노인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정도모 정책으로 전환 ◦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제도 등 농촌사회의 생활안전망과 복지인프라 구축 ◦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 전수 위한 사업 확대 ◦ 여가인프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가와 교육, 복지의 연계 ◦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과 여성노인중점지원

- 이외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따른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정책제언으로 일과 삶의 균형 유도, 숙박시설/음식점 특별등급제 실시, 시니어 디스카운트제도 도입, 고급레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여가경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가문화관련 사회공헌통합체계, 공공시설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함.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가족관계

제3절 경제활동

제4절 여가활동

제5절 심리적 특성

제3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 분포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표 3-1>과 같이 남성이 52.5%(274명), 여성이 47.5%(248명)로 나타났다.

<표 3-1> 성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274	52.5
여자	248	47.5
전체	522	100.0

2. 연령 분포

- 베이비부머세대인 1963년생(만49세)부터 1955년생(만57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표 3-2>와 같이 49세가 16.7%(87명), 56세가 11.9%(62명), 52세 및 57세가 11.7%(61명), 50세가 10.9%(57명), 53세 및 55세가 9.8%(51명), 54세가 9.6%(50명), 51세 7.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중에서 1955-1959년 출생에 해당되는 전기 베이비붐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체의 53.1%였고, 1960-1963년 출생에 해당되는 후기 베이붐세대는 46.9%였음.

<표 3-2>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후기 (245명)	49세	37 (13.5)	50 (20.2)	87 (16.7)
	50세	29 (10.6)	28 (11.3)	57 (10.9)
	51세	24 (8.8)	16 (6.5)	40 (7.7)
	52세	29 (10.6)	32 (12.9)	61 (11.7)
전기 (277명)	53세	22 (8.0)	29 (11.7)	51 (9.8)
	54세	32 (11.7)	18 (7.3)	50 (9.6)
	55세	28 (10.2)	23 (9.3)	51 (9.8)
	56세	37 (13.5)	25 (10.1)	62 (11.9)
	57세	36 (13.1)	27 (10.9)	63 (12.1)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3. 교육수준

-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살펴보면 <표 3-3>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이 43.3%(226명)로 가장 많았음. 전문대 졸업이상의 고학력자가 약 47%정도로 나타났으며, 중졸이하의 학력에 해당되는 사람은 10% 미만이었음. 이는 2010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약 25%, 중졸이하의 학력이 약 31%정도로 조사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임. 성별과 교육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중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기 베이비부머에 비

해 후기 베이비부머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53.1%)가 많았고, 전기 베이비부머에 해당되는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58.4%)가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3>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초등졸	4 (1.5)	6 (2.4)	10 (1.9)
중졸	16 (5.8)	25 (10.1)	41 (7.9)
고등학교 졸	113 (41.2)	113 (45.6)	226 (43.3)
전문대 졸	50 (18.2)	53 (21.4)	103 (19.7)
대졸	70 (25.5)	39 (15.7)	109 (20.9)
대학원졸	21 (7.7)	12 (4.8)	33 (6.3)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4. 결혼상태

-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표 3-4> 와 같이 미혼인 경우는 전체의 0.4%에 불과함. 혼인이나 동거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90%이상이었음. 결혼상태는 성별이나 전·후기 베이비부머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4> 결혼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배우자 있음	기혼	475	91.0
	동거	5	1.0
배우자 없음	별거	5	1.0
	미혼	2	0.4
	이혼	21	4.0
	사별	14	2.7
전체		522	100.0

5. 가구원 수

- 조사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 수는 평균 3.5명으로 나타났고, <표 3-5> 에서와 같이 4명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7.4%(195명)로 가장 많았음. 혼자살고 있는 경우는 1%였고, 5명이상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약 17% 정도였음.

<표 3-5>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분(가구원 수)	빈도(명)	비율(%)
1명	5	1.0
2명	91	17.4
3명	143	27.4
4명	195	37.4
5명	74	14.2
6명	13	2.5
7명	1	0.2
전체	522	100

6. 동거 가족 유형

- 조사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으로는 <표3-6>에서와 같이 배우자 90%, 미혼자녀 78.4%였고, 기혼자녀 또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6.9%, 11.1%로 나타났음.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총 59가구로

전체의 11.3%였고,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의 67.8%인 354 가구였음. 이는 전국 베이비부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임. 단 1인 가구의 비율은 1%로 전국조사 5.5%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3-6> 가족구성원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배우자	470	90.0
미혼자녀	409	78.4
기혼자녀	36	6.9
부모님	58	11.1
본인/배우자 형제	16	3.1
기타	2	0.4

주) 복수응답의 결과임.

7. 주거형태

-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표 3-7 >과 같이 자가 47.4%(470명), 전세 23.6%(123명), 보증금/월세가 12.5%(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주거 형태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응답자 수가 적어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영구임대에 주거하는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7>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자가	167 (60.9)	155 (62.5)	322 (61.7)
전세	63 (23.0)	60 (24.2)	123 (23.6)
보증금/월세	41 (15.0)	24 (9.7)	65 (12.5)
영구임대	1 (0.4)	6 (2.4)	7 (1.3)
기타	2 (0.7)	3 (1.2)	5 (1.0)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8. 가구 소득액

- 조사대상자 가구의 1년 총 소득수준의 평균은 약 5,14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년층 전국조사 평균 약 3,749만원 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임. <표 3-8>과 같이 4천~6천만원 미만이 37.9%로 가장 많고, 2천~4천만원 미만이 28%, 6천~8천만원 미만이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천 이상의 고소득가구가 전체 조사대상의 9.8%를 차지하였음.
- 가구의 총 소득액에 있어 성별 차이나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8> 가구의 총 소득액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2,000만원 미만	21 (7.7)	29 (11.7)	50 (9.6)
2,000~4,000만원 미만	78 (28.5)	68 (27.4)	146 (28.0)
4,000~6,000만원 미만	117 (42.7)	81 (32.7)	198 (37.9)
6,000~8,000만원 미만	33 (12.0)	44 (17.7)	77 (14.8)
8,000만원 이상	25 (9.1)	26 (10.5)	51 (9.8)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9. 주관적 경제수준

- 조사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를 넘었음. 생활하기 어려운 편이거나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20.7%로 나타나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이 전국 소득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에 대해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후기 베이비붐세대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음.

<표 3-9> 주관적 경제수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생활이 어려운 편	58 (21.2)	50 (20.2)	108 (20.7)
보통	175 (63.9)	152 (61.3)	327 (62.6)
생활하기 좋은 편	41 (15.0)	46 (18.5)	87 (16.7)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10. 노후에 예상되는 주관적 경제수준

- 노후에 예상되는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에는 <표 3-10>과 같이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이 약 60%로 나타났음. 또한 현재의 경제수준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정서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년기에는 현재, 미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보여짐. 노후에 예상되는 경제수준에 대해서도 남,녀간 차이나 전·후기 베이비부머세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0> 노후에 예상되는 주관적 경제수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생활이 어려운 편	64 (23.4)	50 (20.2)	114 (21.8)
보통	166 (60.6)	145 (58.5)	311 (59.6)
생활하기 좋은 편	44 (16.1)	53 (21.4)	97 (18.6)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11. 노후 생활자금 준비 방법

-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표 3-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의 58%이상이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약 절반 정도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약 30%는 퇴직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중 약 9%정도는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1> 노후 생활자금 준비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연금	236	45.2
퇴직연금	155	29.7
저축	305	58.4
국민연금	250	47.9
아무준비 없음	46	8.9

주) 복수응답의 결과임.

-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 표3-12 > 와 같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국민연금. 또는 저축 중 2가지를 택하여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 중 개인 연금과 저축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중 29.3%는 위의 4가지 방법 중 1가지를 활용하였고, 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전체의 19%는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고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저축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4가지 모두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4.6%로 나타났음.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중 61.9%는 다중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3-12> 노후 생활자금 준비 유형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준비없음		46		8.8
1개	개인연금	13	153	29.3
	퇴직연금	27		
	저축	50		
	국민연금	63		
2개	개인 + 퇴직	9	200	38.3
	개인 + 저축	91		
	개인 + 국민	29		
	퇴직 + 저축	20		
	퇴직 + 국민	15		
	저축 + 국민	36		
3개	개인+퇴직+저축	16	99	19.0
	개인+퇴직+국민	15		
	개인+저축+국민	39		
	퇴직+저축+국민	29		
4개 모두		24		4.6
전체		522		100.0

12. 주관적 생활수준

- 응답자 중 61.5%는 자신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중간정도로 평가하였고,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음. 조사대상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는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후기 세대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음.

<표3-13>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상	4 (1.5)	8 (3.2)	12 (2.3)
중	171 (62.4)	150 (60.5)	321 (61.5)
하	99 (36.1)	90 (36.3)	189 (36.2)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13. 질병의 종류

-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표 3-14>와 같이 관절염이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19.5%, 위장질환이 13.0%, 당뇨 및 고혈당이 9.6%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과 성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보유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간질환에서만 나타났고, 다른 질병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노인세대와 비교할 때 중년기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임.

<표 3-14> 질병의 종류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고혈압	60 (21.9)	42 (16.9)	102 (19.5)
당뇨 및 고혈당	28 (10.2)	22 (8.9)	50 (9.6)
뇌혈관질환	7 (2.6)	2 (0.8)	9 (1.7)
심장질환	13 (4.7)	9 (3.6)	22 (4.2)
암	-	10 (4.0)	10 (1.9)
폐질환	4 (1.5)	2 (0.8)	6 (1.1)
간질환	19 (6.9)	5 (2.0)	24 (4.6)
위장질환	40 (14.6)	28 (11.3)	68 (13.0)
관절염	66 (24.1)	63 (25.4)	129 (24.7)
기타	7 (2.6)	14 (5.6)	21 (4.0)

주) 복수응답의 결과임.

14. 주관적 건강수준

-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고 선택하였고,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5% 정도로 나타나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짐.
-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별 차이도 없었음.

<표 3-15>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매우 나쁘다	2 (0.7)	5 (2.0)	7 (1.3)
나쁜 편이다	39 (14.2)	32 (12.9)	71 (13.6)
보통이다	143 (52.2)	122 (49.2)	265 (50.8)
좋은 편이다	83 (30.3)	84 (33.9)	167 (32.0)
매우 좋은 편이다	7 (2.6)	5 (2.0)	12 (2.3)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

15. 흡연실태

- 응답자중 흡연자의 비율은 <표 3-16>에서와 같이 31.4%로 나타났음.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의 흡연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남성중 56.2%가 흡연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여성의 흡연율은 4%에 불과하였음.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 구분에 따른 흡연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6> 흡연실태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피운다	154 (56.2)	10 (4.0)	164 (31.4)
안피운다	120 (48.8)	238 (96.0)	358 (68.6)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16. 음주실태

- 조사대상자의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표 3-17>과 같이 비음주자의 비율이 전체의 32.2% 정도로 나타났음. 일주일에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는 약 20% 정도로 분석되었음.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비음주자 비율이 18.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7.2%로 여성 비음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여성이 술을 마시는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인 경우가 29.4% 였고, 일주일에 2~4회 마시는 경우는 5.2%에 불과했으나, 남성의 경우는 한달에 2~4회정도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음. 또한 남성 음주자는 일주일에 2~4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도 24.8%로 나타나 음주실태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음.
-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7> 음주실태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전혀 마시지 않음	51 (18.6)	117 (47.2)	168 (32.2)
한 달에 한번	37 (13.5)	73 (29.4)	110 (21.1)
한 달에 2-4회	96 (35.0)	42 (16.9)	138 (26.4)
일주일에 2-4회	68 (24.8)	13 (5.2)	81 (15.5)
일주일에 4회 이상	22 (8.0)	3 (1.2)	25 (4.8)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17. 과음 실태

- 조사대상자가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명 이상을 마시는 횟수를 살펴본 결과 <표 3-18>과 같이 응답자의 44.4%는 비음주자이거나, 음주자이더라도 과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과음하는 경우는 20.7%,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는 4.2%로 나타나 응답자의 1/4정도가 과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과 과음실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과음하는 경우가 없다는 응답이 64.5%, 한 달에 한번 미만이라는 응답이 20.6%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과음한다는 응답이 32.5%, 한달에 한번정도 과음한다는 응답이 17.5%로 나타나 남성이 더 많이 과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전·후 베이비붐세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3-18> 과음실태

(단위: 명, %)

구분	구분		전체
	남	여	
전혀 없다	72 (26.3)	160 (64.5)	232 (44.4)
한 달에 한번 미만	46 (16.8)	51 (20.6)	97 (18.6)
한 달에 한번 정도	48 (17.5)	15 (6.0)	63 (12.1)
일주일에 한번	89 (32.5)	19 (7.7)	108 (20.7)
거의 매일	19 (6.9)	3 (1.2)	22 (4.2)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제2절 가족관계

1. 가족에 대한 의무감

- 베이비부머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을 7개 항목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응답범주 0~70점 중 평균 55.1, 10점 만점 평균 7.9정도로 나타났다. 성별, 전·후기 베이비붐세대에 따라 가족의무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전체 의무감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항목별로는 <표 3-19>에서와 같이 자녀나 배우자의 곤경에 대한 해결 의무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인자녀에 대한 의무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부모에 대한 의무감의 경우 경제적이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돌봄에 대한 의무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의무감 항목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무감을 더 높게 응답하였고, 남성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을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라는 항목에서는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무감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후기 베이비붐세대 간 가족에 대한 의무감 항목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기 베이비붐세대(만 53-57세)는 부모님과 관련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 베이비붐세대(만 49-52세)는 자녀에 대한 의무감을 가장 높게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음.
 - 항목 간 차이 검증에서는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무감을 더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3-19> 가족에 대한 의무감

(단위: 평균(±표준편차))

가족에 대한 의무	전체	성별		전·후기 세대별	
		남 (n=274)	여 (n=248)	전기 (n=277)	후기 (n=245)
자녀가 곤경에 처하면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	9.02 (1.80)	8.97 (1.85)	9.08 (1.74)	8.97 (1.85)	9.09 (1.74)
성인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방문해야 한다	6.92 (2.79)	6.75 (2.79)	7.11 (2.79)	7.08 (2.73)	6.74 (2.86)
배우자가 곤경에 처하면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	9.02 (1.81)	9.02 (1.71)	9.02 (1.93)	9.06 (1.81)	8.98 (1.82)
성인자녀가 이혼이나 실직으로 인해 당신 집으로 들어와 살수도 있다	6.28 (3.29)	8.11 (2.48)	8.05 (2.45)	6.23 (3.31)	6.34 (3.27)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야 한다	8.08 (2.46)	7.84 (3.08)	7.58 (3.13)	8.31* (2.28)	7.82* (2.63)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보게 되었다	7.71 (3.10)	7.84 (3.08)	7.58 (3.13)	7.91 (3.02)	7.49 (3.18)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8.07 (2.87)	8.31* (2.67)	7.81* (3.60)	8.19 (2.84)	7.94 (2.91)
전 체	55.11 (11.69)	55.39 (11.92)	54.80 (11.46)	55.74 (11.18)	54.40 (12.24)

* p<.05

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지지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지지 정도에 대해 4개항목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16점의 응답범주 중 평균 11.5점, 4점 만점 환산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지지정도를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것임.
- 항목별로는 <표 3-20>와 같이 응답자의 3/2이상은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자신이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약 56%정도만이 그런편이라고

응답하였음. 가족의 지지에 대해 남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지지

(단위:%, n=522)

구분	매우 많이	많은 편	약간	전혀 아님	전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31.8	45.6	21.8	0.8	10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현재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24.1	35.4	37.4	3.1	100.0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28.0	31.8	35.6	4.6	100.0
당신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털어 놓을 수 있습니까?	25.5	30.5	40.4	3.6	100.0

3.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정도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 정도에 대해 4개항목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16점의 응답범주 중 평균 7.52점, 4점 만점 환산평균 1.9점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임. 성별과 전·후 베이비붐 세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항목별로는 <표 3-21>과 같이 응답자의 23.2% 정도는 가족의 지나친 요구가 자주내지 종종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족들의 비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1%가 전혀 가족들이 자신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항목별 성별과 전·후 세대 구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의 비판’에 대한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의 경우 자주 비판받거나, 종종 비판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의 신경 건드림’ 항목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족에 대한 긴장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표 3-21> 배우자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정도

(단위: %, n=522)

구분	자주	종종	가끔	전혀아님	전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합니까?	4.8	18.4	54.8	22.0	10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당신을 얼마나 자주 비판합니까?	1.3	9.4	48.3	41.0	10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자주 실망을 느끼십니까?	2.9	11.1	55.6	30.5	10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자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립니까?	2.3	15.3	51.0	31.4	100.0

<표 3-22> 성별에 따른 배우자 제외한 가족과의 갈등정도 차이

(단위: 명, %)

구분		자주	종종	가끔	전혀아님	전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당신을 얼마나 자주 비판합니까? ($\chi^2=15.398$, $p < .05$)	남	109 (39.8)	122 (44.5)	37 (13.5)	6 (2.2)	274 (100.0)
	여	105 (42.3)	130 (52.4)	12 (4.8)	1 (0.4)	248 (10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자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립니까? ($\chi^2=8.382$, $p < .05$)	남	91 (33.2)	138 (50.4)	38 (13.9)	7 (2.6)	274 (100.0)
	여	68 (27.4)	152 (61.3)	20 (8.1)	8 (3.2)	248 (100.0)

4. 배우자의 지지

- 배우자의 지지 정도에 대해 6개 항목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6~24점의 응답범주 중 평균 18.2점, 4점 만점 환산평균 3점으로 나타남.
 - 이는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이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많은 편으로 응답한 것임.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남녀간 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항목별로는 <표 3-23>과 같이 응답자의 약 78%이상이 배우자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약 77%정도는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는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3-23> 배우자의 지지

(단위: %, n=491)

구 분	매우 많이	많은편	약간	전혀 아님	전체
배우자는 당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30.8	47.7	20.6	0.8	100.0
배우자는 당신의 현재 감정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23.8	45.0	29.6	1.7	100.0
배우자는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29.0	44.0	26.3	0.8	100.0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배우자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37.3	40.2	21.0	1.5	100.0
당신이 걱정하는바에 대해 배우자에게 얼마나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29.0	34.0	34.6	2.5	100.0
배우자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36.0	40.2	22.5	1.3	100.0

- 항목별 성별과 전·후 세대 구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3-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

고, 한 개 항목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음. ‘배우자가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항목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배우자의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남성의 경우 가끔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걱정하는 바를 배우자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전혀 고민을 배우자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에 비해 후기 베이비붐세대는 가끔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정도’ 항목에서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많이 편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가끔 편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4> 성별, 전·후 세대별 배우자 지지 정도 차이

(단위: 명,%)

구 분		매우 많이	많은편	약간	전혀아님	전체
배우자는 당신의 현재 감정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chi^2=12.435, p < .05$)	남	2 (0.8)	62 (23.9)	130 (50.2)	65 (25.1)	259 (100.0)
	여	7 (3.0)	82 (35.3)	91 (39.2)	52 (22.4)	232 (100.0)
당신이 걱정하는바에 대해 배우자에게 얼마나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chi^2=8.321, p < .05$)	전기	8 (3.1)	87 (33.6)	75 (29.30)	89 (34.4)	259 (100.0)
	후기	5 (2.2)	81 (34.9)	90 (38.8)	56 (24.1)	232 (100.0)
배우자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chi^2=9.928, p < .05$)	남	3 (1.2)	43 (16.6)	110 (42.5)	103 (39.8)	259 (100.0)
	여	4 (1.7)	65 (28.0)	87 (37.5)	76 (32.8)	232 (100.0)

5. 배우자와의 긴장정도

- 배우자의 긴장 정도에 대해 6개 항목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6~24점의 응답범주 중 평균 11.7점, 4점 만점 환산평균 1.9점으로 나타남. 이는 조

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이 배우자와의 긴장정도가 약간 있는 편으로 응답한 것임. 배우자와의 긴장정도 전체에 있어 성별, 전·후세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항목별로는 <표 3-25>와 같이 응답자의 약 1/4정도는 배우자의 요구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약 19% 정도는 배우자가 자신의 신경을 건드리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배우자의 비판이나, 실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6.8%와 3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25> 배우자와의 긴장정도

(단위: %, n=491)

구 분	자주	종종	가끔	전혀 아님	전체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합니까?	6.3	20.2	55.0	18.5	100.0
배우자는 당신과 얼마나 자주 말다툼을 합니까?	3.3	14.6	58.1	23.9	100.0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을 긴장하게 합니까?	2.5	11.7	52.9	32.9	100.0
배우자는 얼마나 당신을 비판합니까?	2.3	11.9	49.0	36.8	100.0
배우자는 당신을 얼마나 자주 실망시킵니까?	2.5	12.3	50.0	35.2	100.0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립니까?	3.8	15.4	55.2	25.6	100.0

- 성별과 전·후 베이비붐세대 구분에 따라 항목별 응답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3-26>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한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만 나타났음. ‘배우자의 비판 정도’에 대한 항목에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경우 자주 비판받거나, 종종 비판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가끔 비판받거나, 전혀 비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베이비붐세대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26> 성별 배우자와의 긴장 정도 차이

(단위: 명,%)

구분		자주	종종	가끔	전혀아님	전체
배우자는 얼마나 당신을 비판합니까? ($\chi^2=6.914, p < .10$)	남	86 (33.2)	124 (47.9)	38 (14.7)	11 (4.2)	259 (100.0)
	여	92 (39.7)	115 (49.6)	20 (8.6)	5 (2.2)	232 (100.0)

제3절 경제활동

1. 경제활동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들에게 경제활동 경험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표 3-27 >와 같이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0.2%(471명), 경제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51명)이었음.
- 성별과 경제활동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경험의 차이가 나타났음. 전·후기 베이붐세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7> 경제활동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경제활동 경험 있음	269 (98.2)	202 (81.5)	471 (90.2)
경제활동 경험 없음	5 (1.8)	46 (18.5)	51 (9.8)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chi^2=41.299, p < .001$

2. 현재의 경제활동 여부

-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28 >와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82.4%(430명),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7.6%(92명)로 나타났다.
-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경험에 비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약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일에 대한 경험여부에 관한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8>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일을 하고 있음	263 (96.0)	167 (67.3)	430 (82.4)
일을 하고 있지 않음	11 (4.0)	81 (32.7)	92 (17.6)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chi^2=73.581, p< .001$

3. 주당 근로시간

- 조사대상자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3-29>와 같이 응답자의 88%이상이 주당 40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남, 녀 모두 40~59시간 사이의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가 7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39시간 이하의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아, 주당 근로시간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3-29> 주당 근로 시간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20시간 미만	5 (1.9)	9 (5.4)	14 (3.3)
20-39시간	9 (3.4)	27 (16.2)	36 (8.4)
40-59시간	189 (71.9)	121 (72.5)	310 (72.1)
60시간 이상	60 (22.8)	10 (6.0)	70 (16.3)
전체	263 (100.0)	167 (100.0)	430 (100.0)

$\chi^2=41.404$, $p<.001$

4. 직업

- 조사대상자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표 3-30>과 같이 사무직이 26.6%로 가장 많았고, 기술종사자 11.7%, 음식, 숙박업 12.3%, 도소매업 10.2% 순으로 나타났음.
- 직업의 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종사자의 비율과 제조업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직 종사자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의 경우에는 응답범주로 제시된 7가지 유형의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에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19.8%로 남성의 4.9%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0>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농림수산업	10 (3.8)	2 (1.2)	12 (2.8)
제조업	28 (10.6)	8 (4.8)	36 (8.4)
도소매업	28 (10.6)	16 (9.6)	44 (10.2)
음식, 숙박업	32 (12.2)	21 (12.6)	53 (12.3)
사무직	90 (34.2)	49 (29.3)	139 (32.3)
기술종사자	49 (18.6)	12 (7.2)	61 (14.2)
보건의료종사자	13 (4.9)	26 (15.6)	39 (9.1)
기타	13 (4.9)	33 (19.8)	46 (10.7)
전체	263 (100.0)	167 (100.0)	430 (100.0)

$\chi^2=50.658, p<.001$

5. 일을 하는 이유

-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3-31 >와 같이 자신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3%로 차순위였음.
- 일을 하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35.6%로 나타나 응답자들 중 1/3정도는 자신의 일과 사회적 기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유추됨.

<표 3-31>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나와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294 (68.4)	112 (26.0)	24 (5.6)	430 (100.0)
유용하고 생산적인 사람임을 느끼기 위해서	118 (27.4)	255 (59.3)	57 (13.3)	430 (100.0)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199 (46.3)	203 (47.2)	28 (6.5)	430 (100.0)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97 (22.6)	224 (52.1)	109 (25.3)	430 (100.0)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60 (14.0)	217 (50.5)	153 (35.6)	430 (100.0)

○ 성별,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일을 지속하는 이유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32>에서와 같이 세 가지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항목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80.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약 50%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한다는 항목에서도 남성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아니다’라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다는 항목에서도 남성은 ‘그렇다’라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베이비붐세대들이 일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됨.

<표 3-32> 성별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의 차이

(단위: 명,%)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나와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chi^2=54.989$, $p < .01$)	남	211 (80.2)	50 (19.0)	2 (0.8)	263 (100.0)
	여	83 (49.7)	62 (37.1)	22 (13.2)	167 (100.0)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chi^2=13.714$, $p < .05$)	남	129 (49.0)	126 (47.9)	8 (3.0)	263 (100.0)
	여	70 (41.9)	77 (46.1)	20 (12.0)	167 (100.0)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chi^2=8.888$, $p < .05$)	남	43 (16.3)	140 (53.2)	80 (30.4)	263 (100.0)
	여	17 (10.2)	77 (46.1)	73 (43.7)	167 (100.0)

6. 일의 보상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이 생각하는 일을 통한 보상을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표 3-33>과 같이 일에 대한 보상이 소득이라는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고, 인정과 평가 40.9%, 성취감 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조사대상중 약 20%정도는 타인을 돕는 것이나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전·후기 베이비붐세대별 일의 보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한 결과 <표 3-34>에서와 같이 두 가지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여성의 경우 일의 보상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3.1%로 남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의 보상으로 소득을 얻는다는 항목에서는 남성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55.1%로 여성에 비해 많았고, 여성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2%로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일을 통한 보상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합계
인정과 평가를 받는다	176 (40.9)	220 (51.2)	34 (7.9)	430 (100.0)
다른 사람을 돕는다	74 (17.2)	269 (62.6)	87 (20.2)	430 (100.0)
성취감을 느낀다	170 (39.5)	220 (51.2)	40 (9.3)	430 (100.0)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	115 (26.7)	294 (68.4)	21 (4.9)	430 (100.0)
학습의 기회가 된다	123 (28.6)	221 (51.4)	86 (20.0)	430 (100.0)
집밖활동을 하는 기회가 된다	124 (28.8)	269 (62.6)	37 (8.6)	430 (100.0)
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166 (38.6)	224 (52.1)	40 (9.3)	430 (100.0)
소득을 얻는다	226 (52.6)	194 (45.1)	10 (2.3)	430 (100.0)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	139 (32.3)	249 (57.9)	42 (9.8)	430 (100.0)

<표 3-34> 성별 일에 대한 보상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인정과 평가를 받는다 ($\chi^2=8.122, p < .05$)	남	104 (39.5)	145 (55.1)	14 (5.3)	263 (100.0)
	여	72 (43.1)	75 (44.9)	20 (12.0)	167 (100.0)
소득을 얻는다 ($\chi^2=5.233, p < .10$)	남	145 (55.1)	115 (43.7)	3 (1.1)	263 (100.0)
	여	81 (48.5)	79 (47.3)	7 (4.2)	167 (100.0)

7. 일 스트레스

-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일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표 3-35>와 같이 응답자들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부담 스트레스가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중 71%는 시간압박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일에 방해가 될 정도의 스트레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음.

<표 3-35> 일 스트레스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업무부담이 있다	69 (16.4)	279 (64.9)	82 (19.1)	430 (100.0)
시간압박이 있다	73 (17.0)	232 (54.0)	125 (29.1)	430 (100.0)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방해 받는다	46 (10.7)	222 (51.6)	162 (37.7)	430 (100.0)

- 성별,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일에 대한 스트레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36>에서와 같이 두 가지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성의 경우 업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시간압박이 있다는 응답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8%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5.3%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에 따라 일 스트레스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 3-36> 성별 일 스트레스 차이

(단위: 명,%)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업무부담이 있다 ($\chi^2=10.835, p< .05$)	남	49 (18.6)	176 (66.9)	38 (14.4)	263 (100.0)
	여	20 (12.0)	103 (61.7)	44 (26.3)	167 (100.0)
시간압박이 있다 ($\chi^2=5.233, p< .10$)	남	52 (19.8)	145 (55.1)	66 (25.1)	263 (100.0)
	여	21 (12.6)	87 (52.1)	59 (35.3)	167 (100.0)

8.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1.2%, 만족하는 편이다가 31.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8.8%, 매우 만족한다가 6.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1%의 순서를 보임.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37.9%)가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자(10.9%)보다 높았음.

<표 3-37>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전혀 만족하지 않음	5 (1.9)	4 (2.4)	9 (2.1)
만족하지 않는편	29 (11.0)	9 (5.4)	38 (8.8)
보통	136 (51.7)	84 (50.3)	220 (51.2)
만족하는편	81 (30.8)	16 (9.6)	135 (31.4)
매우 만족	12 (4.6)	167 (100.0)	28 (6.5)
전체	263 (100.0)	167 (100.0)	430 (100.0)

$\chi^2=7.859, p< .10$

9. 의논 상대 여부

-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논할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31>와 같이 있다는 응답자가 81.29%(349명), 없다는 응답자가 18.9%(81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의논상대 여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의논상대 있음	206 (78.3)	143 (85.6)	349 (81.2)
의논상대 없음	57 (21.7)	24 (14.4)	81 (18.8)
전체	263 (100.0)	167 (100.0)	430 (100.0)

$\chi^2=3.562, p < .05$

10.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조사대상자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39>와 같이 ‘배우자나 가족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나 자녀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장애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서거나, 실직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80%이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의 88% 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별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됨.

<표 3-39>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실직으로	5 (5.4)	12 (13.0)	75 (81.5)	92 (100.0)
일을 찾고 있으나 찾을 수 없어서	7 (7.6)	25 (27.2)	60 (65.2)	92 (100.0)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4 (4.3)	37 (40.2)	51 (55.4)	92 (100.0)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여	8 (9.7)	39 (42.4)	45 (48.9)	92 (100.0)
배우자나 가족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	10 (10.9)	35 (38.0)	47 (51.1)	92 (100.0)
장애나 다른 이유로 일 할 수 없어서	2 (2.2)	13 (14.1)	77 (83.7)	92 (100.0)
직업에 적절한 기술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8 (8.7)	30 (32.6)	54 (58.7)	92 (100.0)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일이 없어서	8 (8.7)	32 (34.8)	52 (56.5)	92 (100.0)
돌봐야 할 가족이나 자녀가 없어서	12 (13.0)	32 (34.8)	48 (52.2)	92 (100.0)

○ 성별로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40>에서와 같이 네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실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은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아니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에는 남성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45.7%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을 할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응답에서도 남성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

고, 여성은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실직으로’ 항목과 ‘장애나 다른 이유로 일 할 수 없어서’ 항목은 통계적 검증이 유효하지 않았음.

<표 3-40> 성별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차이

(단위: 명,%)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실직으로	남	4 (36.4)	5 (45.5)	2 (18.2)	11 (100.0)
	여	1 (1.2)	7 (8.6)	73 (90.1)	81 (100.0)
일을 찾고 있으나 찾을 수 없어서 ($\chi^2=14.032, p< .05$)	남	3 (27.3)	6 (54.5)	2 (18.2)	11 (100.0)
	여	4 (4.9)	19 (23.5)	58 (71.6)	81 (100.0)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여 ($\chi^2=11.703, p< .01$)	남	3 (27.3)	-	8 (72.7)	11 (100.0)
	여	5 (6.2)	39 (48.1)	37 (45.7)	81 (100.0)
장애나 다른 이유로 일 할 수 없어서	남	1 (9.1)	4 (36.4)	6 (54.5)	11 (100.0)
	여	1 (1.2)	9 (11.1)	71 (87.7)	81 (100.0)

-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41>과 같이 세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남. 실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기 베이비붐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후기 베이비붐세대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일을 찾고 있으나 찾을 수 없어서’라는 항목에서도 전기 베이비붐세대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2%였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8.5%였으나 후기 베이비붐세대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74.4%

로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보였음.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2%로 후기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많았고 또한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2.8% 후기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41> 전·후 베이비붐 세대별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차이

(단위: 명,%)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실직으로 ($\chi^2=4.644$, $p < .10$)	전기	5 (9.4)	8 (15.1)	40 (75.5)	53 (100.0)
	후기	-	4 (10.3)	35 (89.7)	39 (100.0)
일을 찾고 있으나 찾을 수 없어서 ($\chi^2=6.077$, $p < .05$)	전기	7 (13.2)	15 (28.3)	31 (58.5)	53 (100.0)
	후기	-	10 (25.6)	29 (74.4)	39 (100.0)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여 ($\chi^2=5.415$, $p < .10$)	전기	7 (13.2)	18 (34.0)	28 (52.8)	53 (100.0)
	후기	1 (2.6)	21 (53.8)	17 (43.6)	39 (100.0)

11. 은퇴 후 경제활동 욕구

- 은퇴 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75.7%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경우 79.2%가 일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였고, 여성은 71.8%가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음. 성별에 따른 은퇴 후 경제활동 욕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표 3-42> 은퇴 후 경제활동 욕구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일을 하고 싶음	217 (79.2)	178 (71.8)	395 (75.7)
일 하고 싶지 않음	57 (20.8)	70 (28.2)	127 (24.3)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chi^2=3.896, p< .05$

제4절 여가활동

1. 여가활동 참여 정도

- 지난 1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내용과 횟수를 조사한 결과 <표 3-34>와 같이 참여도가 가장 높은 활동은 친교 및 친목활동(88.1%) 이었고, 다음으로는 공연이나 영화관람(75.7%)이었음. 친교나 친목활동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 참여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음. 반면 친교 및 친목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1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포츠활동의 경우 한달에 한번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정도인 49.3%였고, 매일 참여한다는 응답은 6.7%로 다른 활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전체의 51.7%가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13.3%였음. 종교활동은 전체 응답자중 54%정도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났음. 공연이나 영화관람은 6개월에 한두번 한다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8.9%에 불과함.

<표 3-43> 여가활동 참여 정도

(단위: 명, %)

지난 1년 동안	전혀 안함	1년에 1회	6개월 1~2회	한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2~4번	거의 매일	전체
친교 및 친목활동	62 (11.9)	27 (5.2)	52 (10.0)	191 (36.6)	121 (23.2)	57 (10.9)	12 (2.3)	522 (100.0)
스포츠활동	145 (27.8)	44 (8.4)	38 (7.3)	92 (17.6)	87 (16.7)	81 (15.5)	35 (6.7)	522 (100.0)
자원봉사활동	252 (48.3)	49 (9.4)	68 (13.0)	83 (15.9)	55 (10.5)	8 (1.5)	7 (1.3)	522 (100.0)
종교활동	240 (46.0)	19 (3.6)	29 (5.6)	61 (11.7)	119 (22.8)	33 (6.3)	21 (4.0)	522 (100.0)
공연/영화관람	127 (24.3)	73 (14.0)	143 (27.4)	133 (25.5)	38 (7.3)	5 (1.0)	3 (0.6)	522 (100.0)

<표 3-44> 성별 및 전·후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 차이

(단위: 명, %)

지난 1년 동안		전혀 안함	1년에 1회	6개월 1~2회	한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2~4번	거의 매일	전체
친교 및 친목활동 ($\chi^2=32.229$, $p < .01$)	남	52 (19.0)	15 (5.5)	31 (11.3)	86 (31.4)	59 (21.5)	26 (9.5)	5 (1.8)	274 (100.0)
	여	10 (4.0)	12 (4.8)	21 (8.5)	105 (42.3)	62 (25.0)	31 (12.5)	7 (2.8)	248 (100.0)
친교 및 친목활동 ($\chi^2=15.536$, $p < .05$)	전 기	43 (15.5)	19 (6.9)	26 (9.4)	95 (34.3)	63 (22.7)	23 (8.3)	8 (2.9)	277 (100.0)
	후 기	19 (7.8)	8 (3.3)	26 (10.6)	96 (39.2)	58 (23.7)	34 (13.9)	4 (1.6)	245 (100.0)
스포츠활동 ($\chi^2=17.459$, $p < .01$)	남	146 (53.3)	28 (10.2)	38 (13.9)	36 (13.1)	24 (8.8)	1 (0.4)	1 (0.4)	274 (100.0)
	여	106 (42.7)	21 (8.5)	30 (12.1)	47 (19.0)	31 (12.5)	7 (2.8)	6 (2.4)	248 (100.0)
종교활동 ($\chi^2=35.377$, $p < .001$)	남	152 (55.5)	10 (3.6)	11 (4.0)	34 (12.4)	53 (19.3)	6 (2.2)	8 (2.9)	274 (100.0)
	여	88 (35.5)	9 (3.6)	18 (7.3)	27 (10.9)	66 (26.6)	27 (10.9)	13 (5.2)	248 (100.0)

- 성별이나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를 여가활동유형 별로 분석한 결과 <표 3-44>와 같이 3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1개 항목에서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친교 및 친목활동의 경우 남성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19% 정도로 여성 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한달에 한번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6개월에 1~2회 이하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친교 및 친목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친교 및 친목활동 참여에는 세대간 차이도 나타났는데, 전기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15.5%인 것에 비해 후기베이비부머는 7.8%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매일 참여한다는 비율도 전기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차이로 전기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은퇴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스포츠 활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6개월에 1~2회 이하의 참여 비율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달에 한번 이상의 비율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교활동 참여에서도 친교나 스포츠활동 참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른 일의 유형이나 노동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2. 여가활동 참여 효과

- 여가활동에 참여한 이후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3-45>에서와 같이 정신적 건강의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체적 건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반면 응답자중 여가활동 참여로 인해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음.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여가활동 참여효과가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5.2%로 높게 나타났음.

<표 3-45> 여가활동 참여효과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211 (40.4)	255 (48.9)	56 (10.7)	522 (100.0)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177 (33.9)	269 (51.5)	76 (14.6)	522 (100.0)
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157 (30.1)	293 (56.1)	72 (13.8)	522 (100.0)
가족간 관계가 더 좋아졌다	95 (18.2)	307 (58.8)	120 (23.0)	522 (100.0)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겼다	56 (10.7)	230 (44.1)	236 (45.2)	522 (100.0)

<표 3-46> 성별 여가활동 참여효과 차이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신체적으로 더 건강 ($\chi^2=6.475$, $p < .05$)	남	94 (33.2)	133 (48.5)	50 (18.2)	274 (100.0)
	여	86 (34.7)	136 (54.8)	26 (10.5)	248 (100.0)
나에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chi^2=6.536$, $p < .05$)	남	74 (27.0)	153 (55.8)	47 (17.2)	274 (100.0)
	여	83 (33.5)	140 (56.5)	25 (10.1)	248 (100.0)
가족간 관계가 좋아짐 ($\chi^2=6.475$, $p < .05$)	남	49 (17.9)	150 (54.7)	75 (27.4)	274 (100.0)
	여	46 (18.5)	157 (63.3)	45 (18.1)	248 (100.0)

- 성별 여가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46>과 같이 3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여가활동 참여의 신체적 효과는 남성중 18.2%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0.5%

만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음. 자신에 대한 만족도 상승효과에 대해서도 남성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7.2% 여성에 비해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33.5%로 남성에 비해 많았음. 가족간 관계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 남성은 27.4%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여성은 ‘보통’이거나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가활동 참여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47>과 같이 2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여가활동 참여의 신체적 건강효과에 대해서는 전기세대가 후기세대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가족관계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전기 세대는 26.4%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후기 세대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후기 세대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1.6%로 전기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 효과에 대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47> 전·후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효과 차이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신체적으로 더 건강 ($\chi^2=7.739$, $p<.05$)	전기	94 (33.9)	132 (47.7)	51 (18.4)	277 (100.0)
	후기	83 (33.9)	137 (55.9)	25 (10.2)	245 (100.0)
가족간 관계가 좋아짐 ($\chi^2=5.909$, $p<.10$)	전기	42 (15.2)	162 (58.5)	73 (26.4)	277 (100.0)
	후기	53 (21.6)	154 (59.2)	47 (19.2)	245 (100.0)

3. 여가활동 장애요인

- 여가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표 3-48>과 같이 시간의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음.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취미나 의욕의 부족 순으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음. 건강상 문제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전체의 69.2%로 가장 많았음.

<표 3-48> 여가활동 장애요인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건강상 문제	41 (7.9)	120 (23.0)	361 (69.2)	522 (100.0)
경제적 부담	59 (11.3)	250 (47.9)	213 (40.8)	522 (100.0)
시간부족	92 (17.6)	292 (55.9)	138 (26.4)	522 (100.0)
교통불편	27 (5.2)	166 (31.8)	329 (63.0)	522 (100.0)
여가프로그램 부족	38 (7.3)	164 (31.4)	320 (61.3)	522 (100.0)
여가시설 부족	32 (6.1)	170 (32.6)	320 (61.3)	522 (100.0)
여가관련 정보부족	38 (7.3)	198 (37.9)	286 (54.8)	522 (100.0)
취미나 의욕 부족	52 (10.0)	197 (37.7)	273 (52.3)	522 (100.0)

- 성별 여가활동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49>와 같이 4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남성이 시간부족, 여가프로그램 부족, 여가시설 부족, 취미나 의욕의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49> 성별 여가활동 장애요인 차이

(단위: 명, %)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시간부족 ($\chi^2=9.099$, $p < .01$)	남	62 (22.6)	145 (52.9)	67 (24.5)	274 (100.0)
	여	30 (12.1)	147 (59.3)	71 (28.6)	248 (100.0)
여가프로그램 부족 ($\chi^2=8.214$, $p < .05$)	남	27 (9.9)	92 (33.6)	155 (56.6)	274 (100.0)
	여	11 (4.4)	72 (29.0)	165 (66.5)	248 (100.0)
여가시설 부족 ($\chi^2=7.650$, $p < .05$)	남	22 (8.0)	98 (35.8)	154 (56.2)	274 (100.0)
	여	10 (4.0)	72 (29.0)	166 (66.9)	248 (100.0)
취미나 의욕 부족 ($\chi^2=5.364$, $p < .10$)	남	35 (12.8)	103 (37.6)	136 (49.6)	274 (100.0)
	여	17 (6.9)	94 (37.9)	137 (55.2)	248 (100.0)

<표 3-50> 전·후 세대별 여가활동 장애요인 차이

(단위: 명, %)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시간 부족 ($\chi^2=5.190$, $p < .10$)	전기	43 (15.5)	150 (54.2)	84 (30.3)	277 (100.0)
	후기	49 (20.0)	142 (58.0)	54 (22.0)	245 (100.0)
교통 불편 ($\chi^2=6.979$, $p < .05$)	전기	10 (3.6)	79 (28.5)	188 (67.9)	277 (100.0)
	후기	17 (6.9)	87 (35.5)	141 (57.6)	245 (100.0)

-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여가활동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50>과 같이 2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후기 세대가 전기 세대에 비해 시간부족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통이 불편하여 여가활동 참여에 장애가 된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4. 여가활동 만족도

-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3-51>과 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음. 불만족스러운 편으로 응답한 경우는 20.1% 정도였음. 남성의 경우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6.9%로 여성의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음.

<표 3-51>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전혀 만족하지 않음	19 (6.9)	8 (3.2)	27 (5.2)
만족하지 않는편	43 (15.7)	35 (14.1)	78 (14.9)
보통	136 (49.6)	129 (52.0)	265 (50.8)
만족하는편	64 (23.4)	59 (23.8)	123 (23.6)
매우 만족	12 (4.4)	17 (6.9)	29 (5.6)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분야

○ 향 후 더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분야를 질문한 결과 <표 3-52>와 같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각 17.0%, 친교 및 친목활동이 13.4%의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여의사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기부활동에 참여의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5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친교 및 친목활동	40 (14.6)	30 (12.1)	70 (13.4)
스포츠활동	57 (20.8)	32 (12.9)	89 (17.0)
자원봉사활동	39 (14.2)	50 (20.2)	89 (17.0)
종교활동	15 (5.5)	24 (9.7)	39 (7.5)
공연/영화관람	28 (10.2)	26 (10.5)	54 (10.3)
기부활동	18 (6.6)	23 (9.3)	41 (7.9)
가족과 시간보내기	77 (28.1)	63 (25.4)	140 (26.8)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chi^2=12.708, p < .05$

6. 기부활동 참여 여부

-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관이나 종교기관 혹은 정치단체에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3-53>과 같이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반 정도인 51.9%로 나타났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음.

<표 3-53> 기부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참여 경험 있음	125 (45.6)	126 (50.8)	251 (48.1)
참여 경험 없음	149 (54.4)	122 (49.2)	271 (51.9)
전체	274 (100.0)	248 (100.0)	522 (100.0)

제5절 심리적 특성

1. 지역사회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7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4.3점으로 5점 척도의 점수로 환산하면 3.4점 정도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보통이상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경우 3.58로 역시 보통이상의 생활만족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표 3-54>와 같이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계속 대전에서 살고 싶다’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 항목이 차순위를 나타냈음. ‘전반적으로 내 생활에 만족한다’는 항목의 평균은 3.55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음. 응답 범주 별 분포에서도 ‘매우 그렇다’라는 강한 동의는 ‘계속 대전에 살고 싶다’라는 항목에서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 ‘우리 동네는 쾌적한 환경이다’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이웃 사람들과 가깝게 느낀다’는 항목에 강한 동의가 4.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소속감의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55>와 같이 4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이웃 사람들과 가깝게 느낀다’는 항목에서는 여성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편안하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더 편안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항목 등에서도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로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전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3-54> 지역사회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지역 소속 감	이웃사람들이 가깝게 느낀다 (M = 3.16, S.D. =.829)	17 (3.3)	69 (13.2)	273 (52.3)	139 (26.6)	24 (4.6)	522 (10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편안하다 (M = 3.44, S.D. =.797)	13 (2.5)	29 (5.6)	229 (43.9)	218 (41.8)	33 (6.3)	522 (100.0)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M = 3.34, S.D. =.880)	12 (2.3)	70 (13.4)	204 (39.1)	199 (38.1)	37 (7.1)	522 (10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M = 3.50, S.D. =.784)	10 (1.9)	34 (6.5)	194 (37.2)	253 (48.5)	31 (5.9)	522 (100.0)
	우리 동네는 쾌적한 환경이다 (M = 3.52, S.D. =.870)	13 (2.5)	44 (8.4)	170 (32.6)	246 (47.1)	49 (9.4)	522 (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 (M = 3.53, S.D. =.962)	21 (4.0)	52 (10.0)	140 (26.8)	248 (47.5)	61 (11.7)	522 (100.0)
	계속 대전에서 살고 싶다 (M = 3.77, S.D. =.957)	17 (3.3)	34 (6.5)	107 (20.5)	256 (49.0)	108 (20.7)	522 (100.0)
생활 만족	전반적으로, 나는 내 생활에 만족 한다 (M = 3.58, S.D. =.961)	16 (3.1)	50 (9.6)	148 (28.4)	229 (43.9)	79 (15.1)	522 (100.0)

<표 3-55>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소속감 차이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이웃사람들이 가깝게 느낀다 ($\chi^2=10.667$, $p < .05$)	남	9 (3.3)	37 (13.5)	159 (58.0)	60 (21.9)	9 (3.3)	274 (100.0)
	여	8 (3.2)	32 (12.9)	114 (46.0)	79 (31.9)	15 (6.0)	248 (10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편안하다 ($\chi^2=13.473$, $p < .01$)	남	7 (2.6)	22 (8.0)	131 (47.8)	99 (36.1)	15 (5.5)	274 (100.0)
	여	6 (2.4)	7 (2.8)	98 (39.5)	119 (48.0)	18 (7.3)	248 (100.0)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chi^2=14.214$, $p < .01$)	남	7 (2.6)	43 (15.7)	121 (44.2)	89 (32.5)	14 (5.1)	274 (100.0)
	여	5 (2.0)	27 (10.9)	83 (33.5)	110 (44.4)	23 (9.3)	248 (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 ($\chi^2=8.030$, $p < .10$)	남	15 (5.5)	31 (11.3)	80 (29.2)	120 (43.8)	28 (10.2)	274 (100.0)
	여	6 (2.4)	21 (8.5)	60 (24.2)	128 (51.6)	33 (13.3)	248 (100.0)

- 성별, 전·후기 세대별, 소득수준 별 지역소속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고, 성별과 소득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56>과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소득수준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수준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지역사회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3-56>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소속감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비고
성별	남	274	23.7	4.57	t=-3.136 df=520 p<.01
	여	248	24.9	4.30	
	전체	522	24.3	4.48	
소득 수준	2천만원 미만	50	22.5	5.17	F=4.661 df=4/517 p=<.01
	2천~4천만원 미만	146	23.5	4.51	
	4천~6천만원 미만	198	24.8	4.57	
	6천~8천만원 미만	77	24.9	3.52	
	8천만원 이상	51	25.3	3.95	
	전체	522	24.3	4.48	

3. 우울감

- 조사대상자의 우울감 정도를 총 20개 항목, 최대값 60점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한 결과 0~51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3.59점(표준편차 7.15)으로 분석되었음. CES-D척도는 16점 이상을 높은 우울 증상을 가진 것으로 판별하는데, 응답자중 높은 우울 증상을 가진 것으로 판별된 사람은 전체의 33.9%로 나타났음. 20개 항목별 응답 비율은 <표 3-5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음.

<표 3-57> 우울감 항목

(단위: %, 명)

구분	극히 드물다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여겨짐 (M=.69, S.D=.665)	217 (41.6)	256 (49.0)	44 (8.4)	5 (1.0)	522 (100.0)
입맛이 없음 (M=.65, S.D=.671)	232 (44.4)	246 (47.1)	37 (7.1)	7 (1.3)	522 (100.0)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 칠 수 없음 (M=.58, S.D=.658)	262 (50.2)	225 (43.1)	28 (5.4)	7 (1.3)	522 (100.0)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 있다고 느낌* (M=.94, S.D=.825)	26 (5.0)	85 (16.3)	244 (46.7)	167 (32.0)	522 (100.0)
무슨 일을 하던 정신 집중이 어려움 (M=.66, S.D=.667)	231 (44.3)	244 (46.7)	42 (8.0)	5 (1.0)	522 (100.0)
우울함 (M=.64, S.D=.744)	261 (50.0)	197 (37.7)	54 (10.3)	10 (1.9)	522 (100.0)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짐 (M=.75, S.D=.754)	221 (42.3)	220 (42.1)	72 (13.8)	9 (1.7)	522 (100.0)
미래에 대한 희망적으로 느껴짐* (M=1.20, S.D=.878)	34 (6.5)	162 (31.0)	201 (38.5)	125 (23.9)	522 (100.0)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 (M=.45, S.D=.666)	332 (63.6)	155 (29.7)	27 (5.2)	8 (1.5)	522 (100.0)
두려움 느낌 (M=.52, S.D=.653)	295 (56.5)	187 (35.8)	37 (7.1)	3 (0.6)	522 (100.0)
잠을 설쳤음 (M=.68, S.D=.726)	234 (44.8)	231 (44.3)	45 (8.6)	12 (2.3)	522 (100.0)
행복했음* (M=1.32, S.D=.817)	31 (5.9)	191 (36.6)	214 (41.0)	86 (16.5)	522 (100.0)
평소보다 말을 적게 함 (M=.69, S.D=.766)	244 (46.7)	211 (40.4)	52 (10.0)	15 (2.9)	522 (100.0)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 (M=.57, S.D=.712)	285 (54.6)	187 (35.8)	41 (7.9)	9 (1.7)	522 (100.0)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차갑게 대하는 느낌 (M=.39, S.D=.599)	344 (65.9)	153 (29.3)	22 (4.2)	3 (0.6)	522 (100.0)
생활이 즐거움* (M=1.30, S.D=.872)	40 (7.7)	181 (34.7)	198 (37.9)	103 (19.7)	522 (100.0)
갑자기 울음이 나옴 (M=.34, S.D=.625)	380 (72.8)	111 (21.3)	25 (4.8)	6 (1.1)	522 (100.0)
슬픔을 느낌 (M=.44, S.D=.639)	329 (63.0)	161 (30.8)	27 (5.2)	5 (1.0)	522 (100.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음 (M=.33, S.D=.564)	373 (71.5)	126 (24.1)	22 (4.2)	1 (0.2)	522 (100.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없음 (M=.45, S.D=.666)	332 (63.6)	155 (29.7)	27 (5.2)	8 (1.5)	522 (100.0)

*는 역코딩 하여 평균값 계산, '극히 드물다'= 0 ~ '거의 대부분'= 3 으로 점수화

- 성별 및 베이비붐 전·후세대별 우울감 항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3-5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세개 항목에서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차이가 검증되었음. ‘무슨 일을 하든 정신 집중이 어렵다’는 항목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주 또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진다’ 항목에는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자주 또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는 항목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항목에서는 ‘자주 또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서 높았고,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에서는 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표 3-58> 성별 및 전·후세대별 우울감 항목의 차이

(단위: %, 명)

구분		극히 드물다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계
무슨 일을 하던 정신 집중이 어려움 ($\chi^2=6.648$, $p < .10$)	남	129 (47.1)	128 (46.7)	16 (5.8)	1 (0.4)	274 (100.0)
	여	102 (41.1)	116 (46.8)	26 (10.5)	4 (1.6)	248 (100.0)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짐 ($\chi^2=8.192$, $p < .05$)	전기	126 (45.5)	102 (36.8)	45 (16.2)	4 (1.4)	277 (100.0)
	후기	95 (38.8)	118 (48.2)	27 (11.0)	5 (2.0)	245 (100.0)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 는 것 같음 ($\chi^2=9.032$, $p < .05$)	전기	188 (67.9)	70 (25.3)	17 (6.1)	2 (0.7)	277 (100.0)
	후기	156 (63.7)	83 (33.9)	5 (2.0)	1 (0.4)	245 (100.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음 ($\chi^2=7.609$, $p < .10$)	전기	206 (74.4)	56 (20.2)	15 (5.4)	-	277 (100.0)
	후기	167 (68.2)	70 (28.6)	7 (2.9)	1 (0.4)	245 (100.0)

- 성별, 전·후기 세대별, 소득수준 별 우울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세대별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고, 소득수준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로 분석되었음. <표 3-59>과 같이 소득수준이 4천만원 미만인 집단이 4천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우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표 3-59>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 차이

소득수준	N	평균	표준편차	비고
2천만원 미만	50	18.58	9.74	F=11.420 df=4/517 p=.000
2천~4천만원 미만	146	14.98	7.58	
4천~6천만원 미만	198	12.23	6.09	
6천~8천만원 미만	77	12.43	5.79	
8천만원 이상	51	11.78	5.70	
합계	522	13.59	7.15	

<표 3-60> 소득과 우울집단간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2천미만	2-4천 미만	4-6천 미만	6-8천 미만	8천이상	전체
우울정도	비우울	22 (44.0)	79 (54.1)	145 (73.2)	56 (72.7)	43 (84.3)	345 (66.1)
	우울	28 (56.0)	67 (45.9)	53 (26.8)	21 (27.3)	8 (15.7)	177 (33.9)
전 체		50 (100.0)	146 (100.0)	198 (100.0)	77 (100.0)	51 (100.0)	522 (100.0)

$\chi^2=33.816$, $p < .001$

- 성별, 전·후기 세대별, 소득수준 별로 CES-D 척도 우울정도 판별 기준에 따라 구분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간 구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만이 우울정도 집단구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집단에 속한 비율이 56%로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수준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과 우울증상 판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보여주는 것임.

3.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

- 노후나 은퇴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표 3-61 >와 같이 나타남. 조사대상자 중 38.3%는 경제적 준비부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1%는 자녀와의 관계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배우자와의 관계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도 27%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응답이 22.6%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은퇴후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와 가족관계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임.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 문제나 외로움의 문제, 부모 부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40% 이상을 차지하였음.
- 성별로 은퇴 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표 3-62>에서와 같이 2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남. ‘경제적 준비 부족’ 항목에서는 남성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42.3%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1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보였음.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61> 은퇴 후 예상되는 문제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경제적 준비 부족	200 (38.3)	249 (47.7)	73 (14.0)	522 (100.0)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118 (22.6)	303 (58.0)	101 (19.3)	522 (100.0)
건강악화로 인한 장기간 병원비 문제	98 (18.8)	181 (34.7)	243 (46.6)	522 (100.0)
건강 문제	89 (17.0)	254 (48.7)	179 (34.3)	522 (100.0)
여가활용의 문제	95 (18.2)	245 (46.9)	182 (34.9)	522 (100.0)
부모부양	85 (16.3)	211 (40.4)	226 (43.3)	522 (100.0)
외로움	78 (14.9)	210 (40.2)	234 (44.8)	522 (100.0)
배우자와 좋은 관계 유지	141 (27.0)	259 (49.6)	122 (23.4)	522 (100.0)
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	162 (31.0)	262 (50.2)	98 (18.8)	522 (100.0)

<표 3-62> 성별 은퇴 후 문제대한 인지 차이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경제적 준비부족 ($\chi^2=4.983$, $p < .10$)	남	116 (42.3)	126 (46.0)	32 (11.7)	274 (100.0)
	여	84 (33.9)	123 (49.6)	41 (16.5)	248 (100.0)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chi^2=12.716$, $p < .01$)	남	72 (26.3)	164 (59.9)	38 (13.9)	274 (100.0)
	여	46 (18.5)	139 (56.0)	63 (25.4)	248 (100.0)

-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별 은퇴 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표 3-63>에서와 같이 4개 항목에서 차이가 검증되었음. ‘경제적 준비부족’, ‘건강악화로 인한 장기간 병원비 문제’, ‘건강문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전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은퇴 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전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은퇴를 더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여짐.

<표 3-63> 전·후 세대별 은퇴 후 문제대한 인지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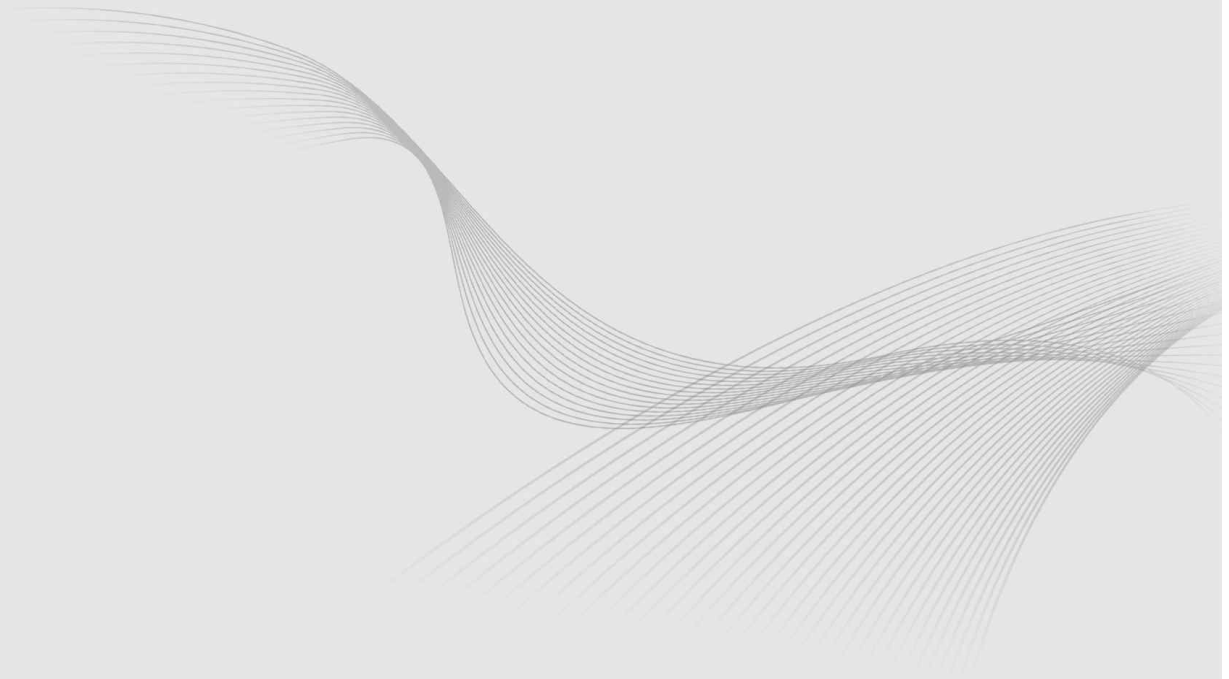
구 분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경제적 준비부족 ($\chi^2=6.323$, $p < .05$)	전기	115 (41.5)	118 (42.6)	44 (15.9)	277 (100.0)
	후기	85 (34.7)	131 (53.5)	29 (11.8)	245 (100.0)
건강악화로 인한 장기간 병원비 문제 ($\chi^2=6.820$, $p < .05$)	전기	62 (22.4)	85 (30.7)	130 (46.9)	277 (100.0)
	후기	36 (14.7)	96 (39.2)	113 (46.1)	245 (100.0)
건강문제 ($\chi^2=7.284$, $p < .05$)	전기	55 (19.9)	120 (43.3)	102 (36.8)	277 (100.0)
	후기	34 (13.9)	134 (54.7)	77 (31.4)	245 (100.0)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chi^2=5.987$, $p < .05$)	전기	98 (35.4)	134 (48.4)	45 (16.2)	277 (100.0)
	후기	64 (26.1)	128 (52.2)	53 (21.6)	245 (100.0)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 조사대상 대전시 거주 베이비부머 522명 중 남성의 비율은 52.5%였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상의 고학력자가 약 47%정도로 전국 평균대비 높게 나타났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90%이상으로 나타났고, 함께 생활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이었고 4명의 가족의 비율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67.8%였음. 주거형태는 자가 소유가 47.4%였고 1년 평균 가구 소득액은 약 5,14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주관적 경제수준과 노후에 예상되는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이상일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약 80%정도로 나타났고, 대부분 노후 생활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조사대상자 중 약 9% 정도는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병은 관절염, 고혈압, 위장질환 순으로 많았고, 주관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약 15%정도로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흡연자의 비율은 31.4%였고, 남성의 흡연율은 56.2%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음주자의 비율은 전체의 67.8%였으며, 일주일에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는 약 20%정도로 분석됨. 남성 음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도 8%정도에 달했음. 매일 술을 마시며 과음하는 비율은 남성의 6.9%에 해당되었음.

- 가족에 대한 의무감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곤경에 대한 해결의무감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인자녀에 대한 의무감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부모에 대한 의무감의 경우 경제적이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돌봄에 대한 의무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전기 베이비붐 세대(만 53~57세)는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후기 베이비붐 세대(만 49~52세)는 자녀에 대한 의무감이 높게 나타났음. 배우자 또는 가족의 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긴장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 항목 중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대전시 베이비부머들의 경제활동 경험률은 90.2%였고, 남성중 98.2%, 여성 중 81.5%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 96%, 여성 67.3%로 분석되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이 경험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일을 하는 경우 응답자의 88%이상이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고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직업유형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6.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직 종사자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의 시간제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자신과 가족의 부양 및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많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자신의 일과 사회적 기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은 일에

대한 보상을 소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정과 평가 및 성취감을 들었음.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과 평가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해 일에 대한 보상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어느 정도의 업무부담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37.9%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10.9%보다 높게 나타났음.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성의 경우 실직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기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도 실직이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은퇴 후 경제활동 지속의사에 대해 75.7%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베이비부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는 88.1%가 친교 및 친목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연이나 영화 관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음.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는 51.7%가 1년 중 1회이상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주일에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13.3%였음. 친교 및 친목활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후기 베이비붐세대가 전기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활동이나 종교활동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매일 참여한다는 비율이 여성이나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른 일의 유형이나 노동시간의 차이, 그리고 전기세대의 경우 은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유추됨. 여가활동 참여의 효과로 정신적 건강의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여가활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5.2%로 나타났음. 여가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응답자들은 시간의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취미나 의욕의 부족 순으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음.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2%,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0.1%정도 있음.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분야로는 ‘가족과 시간보내기’에 대한 응답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현재 여가활동 참여의 효과로 가족관계 개선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많았던 것에 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기부활동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조사대상자의 기부활동 참여 경험은 약 절반 정도인 51.9%로 나타나 1년에 1회 이상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지역 베이비부머들은 5점 척도 기준 ‘보통’이상의 지역사회소속감과 생활만족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소속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소속감을 보였으며, 소득수준이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높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지역사회 소속감 항목별로는 ‘계속 대전에서 살고 싶다’라는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항목이 차순위였음. 반면 ‘이웃사람들이 가깝게 느껴진다’ 항목은 가장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됨.
- 조사대상 대전지역 베이비부머들의 우울감은 최대값 60점 중 평균 13.59로 나타났고, 높은 우울증상의 판별기준인 16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의 33.9%로 나타났음. 우울감은 성별,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높은 우울증상에 해당되는 집단과 해당되지 않는 집단을 구분했을 때도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천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집단에 속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조사대상자 중 38.3%가 경제적 준비부족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31%는 자녀와의 관계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를 예상한 경우도 27%에 해당되었음.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건강이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2절 정책제언

1.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준비를 위한 서비스 확대

- 베이비붐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임. 따라서 노후대비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체계 진입 이전단계에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적 준비부족이고, 가족 간 관계의 문제도 30%가량의 응답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시차원에서 노후의 경제생활 및 소득관리 프로그램과 가족결속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베이비부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개설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베이비부머의 현재 및 노후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노후생활안내사이트인 백세누리에 베이비부머 전용코너를 개설하는 내용이 제안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11),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밀착형 정보를 대전시 베이비부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사대상 대전시 거주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소득수준도 높고, 건강수준이나 경제수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도 보통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경제활동을 사회적기여로 연관시키는 등의 사회적 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부머는 향 노년층으로 자신의 경제활동 참여의 의미를 경제성에만 두지 말고 사회적, 심리적 생산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노년기의 자아통합의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노년기 진입에 따른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함.
- 또한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는 현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이 높고, 흡연율, 음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은 많고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참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일 중심이 아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향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년기 준비교육을 활성화하고 노후설계서비스 등과 같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베이비부머 우울감 감소 대책 마련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는 전반적으로 경제, 여가, 지역사회 소속감, 생활만족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년기 우울감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노년층인 베이비부머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높은 우울증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노년기의 우울증이나 자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우울검사 확대와 우울증 확진 시 사회적 서비스의 연결 등을 통한 적극적 예방 대처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지역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과 같이 저소득층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지역자활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취업 및 취업유지를 위해서는 취업교육이나 훈련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관련된 서비스도 필요함. 우울감이 높은 경우에는 직업을 구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결근이나 직무성취,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폭넓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WHO, 2000).

3. 가족관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 행복한 한국인의 7가지 특징을 밝힌바 있는데, 이중 가족과 여가를 중시하는 것이 한 요인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여가정책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 베이비부머의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13.3%로 나타났다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사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생산적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업무부여, 지도감독, 인정과 보상에 이르는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자원봉사 활동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 가족자원봉사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의 중요 걱정거리 중의 하나인 가족관계의 문제를 예방 및 경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짐.
- 한편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은 남성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후 걱정거리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비부머들은 향후 노년기에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삶에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결혼 후 쌓여온 갈등이나 그 동안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 형태 등이 달라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노년기에 심각해 질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된 부부상

답 내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의 욕구에 맞춰 개발되거나 강화된 프로그램은 현재 가족상담내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베이비부머에게 제공될 수 있음.
 -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은 대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은 적든 서비스대상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주요 업무의 하나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특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관계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복지관을 통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족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가족생활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므로 강화된 베이비부머의 가족상담 내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적절한 기관으로 여겨짐.
-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의무감의 경우 경제적이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돌봄에 대한 의무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노부모 수발은 베이비부머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노부모수발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과 등에서 치매나 중풍과 같이 수발부담이 큰 질환이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베이비부머에게 부양기술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의 대부분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노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준

비 부족을 가장 염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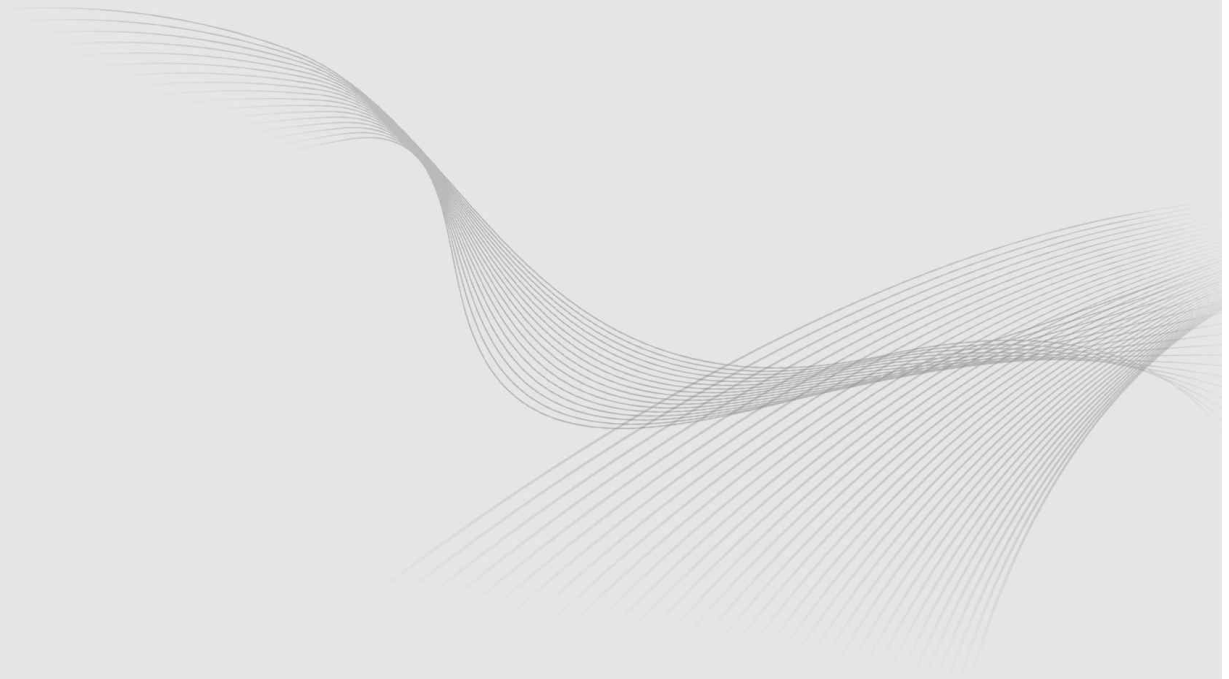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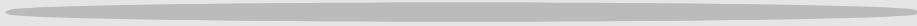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는 그동안 경험한 안락한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노년기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박탈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잘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세대가 될 때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에 노인일자리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5. 지역사회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떨어짐.
 - 따라서 이웃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부머들의 잠재된 자원봉사 욕구를 잘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들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을단위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이웃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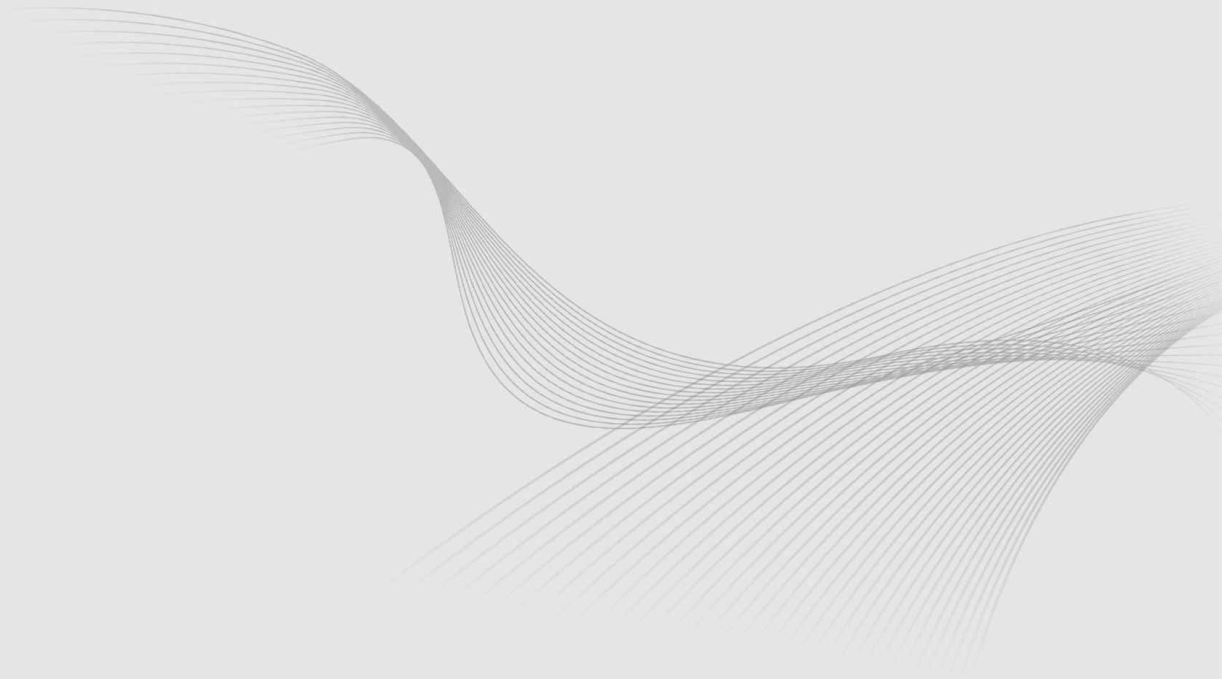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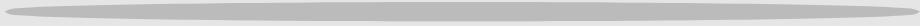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김영란·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동아일보(1986.11.11.). 대기업 대졸여성 공채에 대인파.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이성균·우석진·김기현·김지경(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변미리(2010).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도시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정책리포트. 71.
-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 이수진·허선희(2011).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정경희·남상호·오영희·이소정·이윤경·정홍원·이은진·김성숙·류건식·신현구·정정숙·천현숙·한정림 (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장열(2006). 한국의 50대. 40대에 밀리고 노인도 아닌 50대는 '긴 세대'. 주간조선.
- 조경옥·이중섭·박신규(2011).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35.
- 질병관리본부(2008).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붐 세대의 특징.
-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 한경혜·최현자·은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2011).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서

- 울대학교 노화·고령 사회연구소.
- 한국경제매거진(2012.5.30.). 고용·건강·가족‘위기’.
- 한국경제연구원(2009). 베이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 Papalia, D. E., Feldman, R. D., & Olds, S. W.(2006). *Human development(10th ed.)*.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Phillipson, C.(2007). Understanding the baby boom generation: Comparative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2(2), 7-11.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si, A. S.(2001). *Caring and doing for others: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domains of family, work, and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ster, T. L., Kessler, R. C., & Aseltine, R. H.(1990). Supportive interactions, negative interactions, and depressive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423-438.
- Westermeier, C., Rasner, A., & Grabka, M. G.(2012). The prospects of the baby boomers: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projecting the lives of an aging cohort, SOEP papers on multidisciplinary panel data research, No. 440, <http://hdl.handle.net/10419/59014>.
- WHO(2000). *Mental health and work: Impact, issues and good practices*. 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en/712.pdf.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부록



【부록】

--	--	--	--	--

고령사회 대비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고령사회 대비 베이비부머세대인 장년층 시민들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전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 • 대전발전연구원

20012. 10.

연구책임자 장창수(전화 문의: 530-3545, 010-****-*****)

공동연구원	윤 경 아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 윤 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생님의 실제 나이가 **만 49세 ~ 57세(1963년~1955년생)**인 경우만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연령은? 만()세

1. 가족생활

1.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의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다’ 0 점 ↔ ‘꼭 해야 한다’ 10점까지 중 해당되는 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가족의 의무	‘전혀 할 필요가 없다’ 0 점 ↔ ‘꼭 해야 한다’ 10점
① 자녀가 곤경에 처하면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성인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방문해야 한다.	
③ 배우자가 곤경에 처하면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성인자녀가 이혼이나 실직으로 인해 당신 집으로 들어와 살수도 있다.	
⑤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야 한다.	
⑥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보게 되었다.	
⑦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다음의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가족관계	매우 많이	많은 편	약간	전혀 아님
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②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현재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③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④ 당신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털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가족관계	자주	종종	가끔	전혀 아님
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합니까?				
②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당신을 얼마나 자주 비판합니까?				
③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자주 실망을 느끼십니까?				
④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신경을 건드립니까?				

가족관계	매우 많이	많은 편	약간	전혀 아님
① 배우자는 당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② 배우자는 당신의 현재 감정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③ 배우자는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④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배우자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⑤ 당신이 걱정하는바에 대해 배우자에게 얼마나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⑥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가족관계	자주	종종	가끔	전혀 아님
①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합니까?				
② 배우자는 당신과 얼마나 자주 말다툼을 합니까?				
③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을 긴장하게 합니까?				
④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을 비판합니까?				
⑤ 배우자는 당신을 얼마나 자주 실망시킵니까?				
⑥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립니까?				

II. 경제활동

1. 귀하는 현재까지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번으로 이동

3.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대략 _____시간

4.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 ① 농림수산업 ② 제조업 ③ 도소매업 ④ 음식, 숙박업
 ⑤ 사무직 ⑥ 기술종사자 ⑦ 보건의료종사자

5. 귀하는 어떤 이유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일을 하는 이유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나와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② 유용하고 생산적인 사람임을 느끼기 위해서			
③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④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⑤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6. 귀하는 일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으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일을 통한 보상 내용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인정과 평가를 받는다.			
② 다른 사람을 돕는다.			
③ 성취감을 느낀다.			
④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			
⑤ 학습의 기회가 된다.			
⑥ 집밖활동을 하는 기회가 된다.			
⑦ 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⑧ 소득을 얻는다.			
⑨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			

7. 귀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업무스트레스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업무부담이 있다.			
② 시간압박이 있다.			
③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방해받는다.			

8. 현재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9.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실직으로			
② 일을 찾고 있으나 찾을 수 없어서			
③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④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⑤ 배우자나 가족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⑥ 장애나 다른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서			
⑦ 직업에 적절한 기술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⑧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일이 없어서			
⑨ 돌봐야 할 가족이나 자녀가 있어서			

11. 은퇴 후나 노년기에도 경제적인 일을 하거나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III. 여가활동

1.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전혀 안함	1년에 1회	6개월에 1~2회	한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2~4번	거의 매일
① 친교 및 친목활동							
② 스포츠활동							
③ 자원봉사활동							
④ 종교활동							
⑤ 공연/영화관람							

2. 여가활동에 참여한 후 어떤 효과를 경험하셨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여가활동 효과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②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③ 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④ 가족 간 관계가 더 좋아졌다.			
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겼다.			

3. 여가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여가활동 장애요인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건강상 문제			
② 경제적 부담			
③ 시간 부족			
④ 교통 불편			
⑤ 여가 프로그램 부족			
⑥ 여가 시설 부족			
⑦ 여가관련 정보 부족			
⑧ 취미나 의욕 부족			

4.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5.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기관 혹은 정치단체에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향후 더 참여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친교 및 친목활동 ② 스포츠활동 ③ 자원봉사활동 ④ 종교활동
 ⑤ 공연/영화관람 ⑥ 기부활동 ⑦ 가족과 시간보내기

IV. 안녕상태 및 은퇴/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

1. 다음의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이웃사람들이 가깝게 느낀다.					
②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편안하다.					
③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④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상 생활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⑤ 우리 동네는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⑥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에 계속 살고 싶다.					
⑦ 계속 대전에서 살고 싶다.					
⑧ 전반적으로, 나는 내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2. 아래에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일 동안 본인이 느끼고 행동한 것의 빈도를 표시해 주세요.

나는 지난 1주일동안	극히 드물다 (1일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② 입맛이 없었다.				
③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④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⑥ 우울했다.				
⑦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⑧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⑨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⑩ 두려움을 느꼈다.				
⑪ 잠을 설쳤다.				
⑫ 행복했다.				

⑬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⑭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⑮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⑯ 생활이 즐거웠다.				
⑰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⑱ 슬픔을 느꼈다.				
⑲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⑳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3. 노후나 은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렇다	보통	아니다
① 경제적 준비 부족			
②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③ 건강악화로 인한 장기간 병원비 문제			
④ 건강문제			
⑤ 여가활용의 문제			
⑥ 부모부양			
⑦ 외로움			
⑧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⑨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V. 일반적 특성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등학교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대학원졸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 ④ 별거 ⑤ 이혼 ⑥ 사별

4.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수는 모두 몇 명이십니까? ()명

5. 다음 중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① 배우자 ② 미혼자녀 ③ 기혼자녀 ④ 부모님
⑤ 본인/배우자의 형제 ⑥ 기타()

6.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형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월세 ④ 영구임대 ⑤ 기타

7. 귀 가족의 1년 총 소득은? 일 년에 대략 _____ 만원

8. 현재 가족의 소득으로 볼 때, 귀댁의 경제상황은?

- ① 생활이 매우 어렵다 ② 생활하기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수준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9. 노후에 가족의 소득을 예상할 때, 노후의 경제상황이 어떨 것으로 전망되니까?

- ①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② 생활하기 어려운 편일 것이다
③ 보통수준일 것이다 ④ 좋은 편일 것이다
⑤ 매우 좋을 것이다

10.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저축이나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연금 ② 퇴직연금 ③ 저축 ④ 국민연금(특수직 연금 포함)
⑤ 아무런 준비 없음

1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류층 ② 중산층 ③ 하층

12.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고혈압 ② 당뇨 및 고혈당 ③ 뇌혈관질환 ④ 심장질환
⑤ 암 ⑥ 폐질환 ⑦ 간질환 ⑧ 위장질환
⑨ 관절염 ⑩ 기타(무엇:)

13. 동년배들과 비교할 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비슷하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4.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피운다 ② 안피운다

15.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한 달에 한번 미만 ③ 한 달에 2-4회
④ 일주일에 2-3회 ⑤ 일주일에 4회 이상

16. 한번에 술을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한번 미만 ③ 한 달에 한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 번 ⑤ 거의 매일

정책연구보고서 2012- 33

고령사회 대비 대전지역 베이비부머 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전화 : (042)530-3545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디자인크로스 TEL 070-4216-9392

ISBN : 978-89-981541-9-6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